杜諺 二十三

懷舊

爾寄

送別

尋訪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二

晦日尋崔戢李封

朝光入甕牖尸寢驚弊裘 甕牖ᄂᆞᆫ 以甕口로 爲牖也ㅣ라 論語에 寢不尸ㅣ니라 ○아ᄎᆞᆷ 비치 ᄃᆞᆫ부우리로 혼 창의 들어 늘 주근 ᄃᆞ시 자다가 헌 갓옷ᄃᆞ뢰셔 놀라오라

起行視天宇春氣漸和柔 니러 거러 하ᄂᆞᆯ흘 보니 景氣運이 漸漸溫和코 부드럽도다

興來不暇懶今晨梳我頭 興이 오매 게을음 餘暇ㅣ 업서 오ᄂᆞᆯ 새배 내 머리를 비소라

出門無所待徒步覺自由 自由ᄂᆞᆫ 猶自得也ㅣ니 此ᄂᆞᆫ 言車馬僕從업고 ᄒᆞ오아 거

리ᄆᆞᄋᆞᆷ조초ᄒᆞᆫ날시라○門의나기들을 거시업스니거리뎌自由ᄒᆞ몰가로라 杖

藜復恣意免値公與侯 도ᄐᆞ랏막대디뎌任 ᄯᅳ들放恣히ᄒᆞ니公

과侯를맛나 믈免ᄒᆞ라 脫定崔李交會心眞率儔 늘거 崔李

와사괴요몰一定ᄒᆞ니ᄆᆞᄋᆞᆷ아 토미眞實로ᄧᅡᆨ기드므도다 每過得酒傾

二宅可淹留 기양디나가수를기우려며수 믈어두니두지븐머루이므럼

족ᄒᆞ 도다 喜結仁里懽況因令節求 論語에里仁 이爲美라ᄒᆞ

다唐이以正月晦日로爲令節ᄒᆞ니라○仁 厚ᄒᆞᆫᄆᆞᄋᆞᆯ흿즐거옴交結ᄒᆞ몰깃노니ᄒᆞ믈

며됴ᄒᆞᆫ時節을因ᄒᆞ 야來求ᄒᆞ미依녀 李生園欲荒舊竹頗脩

脩李生의위안히거츨ᄃᆞᆺᄒᆞ니벋데ᄌᆞ모기도다引客着掃除隨時

成獻酬소ᄂᆞᆯ引接ᄒᆞ야ᄡᅳ러리호ᄆᆞᆯ보고時節을조차獻酬를닐우ᄂᆞ다崔

侯初筵色已畏空樽愁崔侯의처엄돗ᄀᆞᆯ젯ᄂᆞᆾ비ᄎᆞᆫᄒᆞ마酒樽이

뷘가저허셔를ᄒᆞ놋다未知天下士至性有此不不은平聲

이라○아디몯ᄒᆞ리로다天下앳사ᄅᆞ미至極ᄒᆞᆫ性이이러ᄒᆞ니잇ᄂᆞ녀업스녀草

莽既青出蜂聲亦暖遊莽이ᄒᆞ마퍼러ᄒᆞ나고버리소리ᄯᅩ

ᄃᆞᄉᆞ노놋다思見農器陳何當甲兵休農器를베프거든보

고져ᄉᆞ랑ᄒᆞ노니어느저긔甲兵을말려뇨上古葛天民不貽黃

屢憂此ᄂᆞᆫ傷今俗薄多亂ᄒᆞ야以貽天子之憂也ㅣ라○上古앳葛天氏의百姓은님금이시르믈받ᄌᆞᆸ디아니ᄒᆞ더니라至今阮籍等熟醉爲身阮籍이值天下危亂ᄒᆞ야遂酣飮不與世謀事ᄒᆞ니以比今之明哲保身者ᄒᆞ다○이제니르러阮籍돌히니기술醉ᄒᆞ야모몰爲ᄒᆞ야俛ᄒᆞᄂᆞ다威鳳高其翔長鯨吞九州威鳳은鳳之有威儀者ㅣ라上句ᄂᆞᆫ喩隱士ᄒᆞ고下句ᄂᆞᆫ喩安史ᄒᆞ니라○威鳳요노피ᄂᆞᆯ어ᄂᆞᆯ긴고래ᄂᆞᆫ아홉ᄀᆞ올ᄒᆞᆯᄉᆞᆷᄭᅵ놋다地軸爲之飜百川皆亂流喩天下之亂ᄒᆞ다○地軸이爲ᄒᆞ야드위티고온내히다이즈러이ᄒᆞ르놋다當歌欲一放淚下恐莫收놀애블르몰當

ᄒᆞ야ᄒᆞᆫ번소리를펴고져ᄒᆞ다가ᄂᆞᆫ므리ᄒᆞ르건갈디몯ᄒᆞᆫ가젼ᄂᆞ라 獨醪有妙理庶用慰沉浮 ᄒᆞ린수리微妙ᄒᆞᆫ理ㅣ잇ᄂᆞ니거의ᄡᅥ沉浮ᄒᆞ야도ᄂᆞᆫᅀᆞᄆᆞᆯ慰勞ᄒᆞ리라

雨過蘇端

鷄鳴風雨交久旱雨亦好 ᄃᆞᆯᄀᆡ울오ᄇᆞᄅᆞᆷ과비왜셧그니오래ᄆᆞᄅᆞ다가비오미ᄯᅩ됴토다 杖藜入春泥無食起我早 言求食而早起也ㅣ라○도ᄐᆞᆺ막ᄃᆡ디퍼봆ᄌᆞᆫᄒᆞᆯᄀᆡ드로니밥업소ᄆᆡ날니르와도ᄆᆞᆯ일ᄒᆞᄂᆞ다 諸家憶所歷一飯迹便掃 言得一飯後에即掃迹ᄒᆞ이不

믈群世ㅣ라○여러지비디나가던디를ᄉᆞ
랑ᄒᆞ니ᄒᆞᆫ번밥머근뒤ᄂᆞᆫ지최ᄇᆞᄇᆞ론ᄃᆞ시업
소라蘇侯得數過歡喜無須倒蘇侯ᄂᆞᆫᄌᆞ조디나ᄆᆞ로得ᄒᆞ야
깃거ᄆᆡ양업드ᄂᆞ다也復可憐人呼兒具梨棗ᄯᅩ可히ᄃᆞᆺ온사
ᄅᆞ미로다아ᄒᆡ불러ᄇᆡ와대초와ᄅᆞᆯᄀᆞᄌᆞ이받ᄂᆞ다獨醪必在眼盡醉
攄懷抱ᄒᆞ린수리반ᄃᆞ시누네잇ᄂᆞ니다醉ᄒᆞ야ᄆᆞᄋᆞᄆᆞᆯ펴노라紅稠屋
角花碧委墻隅草블거하니ᄂᆞᆫ집ᄲᅳ렛고지오퍼러ᄇᆞ렛ᄂᆞ닌담모햇
프리로다親朋縱談謔喧鬧慰衰老衰老ᄂᆞᆫ甫ㅣ自謂라○親
ᄒᆞᆫ버디말ᄉᆞᆷ과戲謔호ᄆᆞᆯᄀᆞ장ᄒᆞ야셔수우워려늘그니를慰勞ᄒᆞᄂᆞ다况蒙霈

澤乘糧粒或自保謂蘇端이遺甫以資糧也ㅣ라○ᄒᆞ믈며霈澤드리우믈니부니어글ᄡᆞᄅᆞᆫ시혹내만노라

妻孥隔軍壘撥棄不擬道甫의妻子ㅣ時在三川ᄒᆞ니라今因飮酒歡樂而欲忘妻子也ㅣ라○겨집과子息괘軍壘예즈음쳐ᄂᆞ니ᄡᆞ혀더뎌니ᄅᆞ고려너기디아니ᄒᆞ노라

夏日李公見訪

遠林暑氣薄公子過我遊먼수프레더윗氣運이엷우니公子ㅣ내게디나와노ᄂᆞ다

貧居類村塢僻近城南樓ㅣ甫居近在長安城南樓而有似村塢也ㅣ라○가난ᄒᆞᆫ사ᄂᆞᆫ仲히村人두듥ᄀᆞᆮᄒᆞ니幽僻호미城

南樓에 갓납도다

傍舍頗淳朴所願亦易求 겨틧 지비ᄌᆞ문 淳朴ᄒᆞ니 ᄒᆞ고져ᄒᆞᄂᆞᆫ 바를 ᄯᅩ 수에 求ᄒᆞ리로다

隔屋喚西家借問

有酒不墻頭過濁醪展席俯長流 지블 즈음처 西ㅅ녁 지블 블러 술 잇ᄂᆞ녀 업스녀 무르니 담 우ᄒᆞ로 ᄒᆞ린 수를 넘겨 놀 돗 펴고 긴 흐르ᄂᆞᆫ 므를 구버 안조라

清風左右至客意已驚秋 ᄆᆞᆯᄀᆞᆫ ᄇᆞᄅᆞ미 左右로 오니 나그내 ᄠᅳ데 ᄒᆞ마 ᄀᆞᄋᆞᆯ힌가 놀라노라

巢多衆鳥鬪葉密鳴蟬稠 기시 하니 衆새 사호고 니픠 칙칙ᄒᆞ니 우ᄂᆞᆫ ᄆᆡ야미 하도다

苦遭此物聒孰語吾廬幽 심히 이 거싀 수우워료ᄆᆞᆯ 맛나니 뉘 닐오ᄃᆡ 내 지븐

幽深타ᄒᆞ리ㄴ

水花晩色靜庶足充淹留 水花는 卽 蓮花ㅣ라

○므렛 고지 나죗 비치 敍靜ᄒᆞ니 거의 足히 손 머믈우믈 이거스로 ᄎᆡ오리로다

恐樽中盡更起爲君謀 미리 樽ㅅ 가온ᄃᆡ 거시 업슬가 저허 다시 니러 그ᄃᆡ 爲ᄒᆞ야 ᄭᅬᄒᆞ노라

有客

幽棲地僻經過少老病人扶再拜難 幽深히 사논 ᄯᅡ히 偏僻ᄒᆞ야 디나오리 져그니 늘고 病ᄒᆞ야 사ᄅᆞᄆᆡ 더위자바 ᄉᆡᆯ셔 다시 절호미 어렵도다

豈有文章驚海內謾勞車馬駐江干 干ᄋᆞᆫ 涯也

ㅣ라 上句ᄂᆞᆫ 甫ㅣ 自謙이오 下句ᄂᆞᆫ 謝客之
來訪이라 ○어느 잇ᄂᆞᆫ 文章이 海內예 사ᄅᆞ
ᄆᆞᆯ 놀래리오 쇽절업시 車馬ᄅᆞᆯ 굿
비ᄒᆞ야 ᄀᆞ뭇ᄆᆞ이와 머므ᄂᆞᆺ다 竟日淹留

佳客坐百年麤糲腐儒餐 腐儒ᄂᆞᆫ 甫ㅣ 自謂 라 ○나리 ᄆᆞᆺᄃᆞ록
머므러 아ᄅᆞᆷ다온 소니 안잿ᄂᆞ니 百年에
사오나온 바ᄇᆞᆯ 석근 션비 먹ᄂᆞᆫ 거시라 莫

嫌野外無供給乘興還來看藥欄 望客의 復 來訪也ㅣ
라 ○드릇 밧긔셔 받ᄌᆞᆸᄂᆞᆫ 것 업수믈 아
쳐디 말오 興을 타 도로 와 藥欄온 보라

客至

舍南舍北皆春水但見群鷗日日來 집 알파 집 뒤헤

다 봆므리로소니 ᄠᅦ ᄀᆞᆯ며기 ᄂᆞᆯ마다 오ᄆᆞᆯ 오직 보리로다

花徑不曾緣客掃 蓬門今始爲君開 곳 ᄢᅥ러뎃ᄂᆞᆫ 길흘 일즉 소ᄂᆡ 젼ᄎᆞ로 ᄡᅳᆯ디 아니ᄒᆞ다니 다봇門을 오ᄂᆞᆯ 비르서 그듸를 爲ᄒᆞ야 여노라

盤飧市遠無兼味 樽酒家貧只舊醅 盤애 다ᄆᆞᆫ 차바니 져제 머러 여러 가짓 마시 업스니 樽엣 수른 지비 가난ᄒᆞ야 오직 녯 아니 걸운 수리로다

肯與隣翁相對飮 隔籬呼取盡餘盃 이우젯 한아비와 다ᄆᆞᆺ 相對ᄒᆞ야 머구믈 肯許ᄒᆞ면 울흘 즈음쳐 블러 나ᄆᆞᆫ 잔ᄋᆞᆯ 모ᄌᆞ 머구리라

嚴中丞枉駕見過 嚴武ㅣ라

元戎小隊出郊坰問柳尋花到野亭 元戎ᄋᆞᆫ指嚴中

丞ᄒᆞ다○元戎의 져근 隊卒이 郊坰으로 나
오나니 버드를 무르며 고ᄌᆞᆯ ᄎᆞ자 ᄆᆡ햇 亭子
애 오시도다 川合東西瞻使節地分南北任流萍

詩예 武爲東西兩川都節制ᄒᆞ다 甫ㅣ在蜀
ᄒᆞ야 望長安則爲南北이니라○ᄡᅵ히 東西
ㅣ모ᄃᆞ니 使節을 보리로다 ᄯᅡ히 南北을 ᄂᆞᆫ
호시니 흘러ᄃᆞᆫ니ᄂᆞᆫ 말왐ᄃᆞ호ᄆᆞᆯ 므던히 너
기노라 扁舟不獨如張翰皂帽應兼似管寧 管寧

이 應下仕常著皂帽ᄒᆞ니라 ᄠᆡᄂᆞᆫ 皆南ㅣ自
謂라○져근 ᄇᆡᄂᆞᆫ ᄒᆞ올로 張翰ᄋᆞᆯ ᄒᆞᆯ ᄲᅮᆫ 다니
라 거믄 곳가ᄅᆞᆫ 당다이
管寧ᄋᆞᆯ 호ᄆᆡ 兼ᄒᆞ도다 寂寞江天雲霧裏何

人道有少微星 少微星은 一名 處士星이니 甫ㅣ自謂라 ○ 寂寞ᄒᆞᆫ ᄆᆞᅀᆞᆷ

하ᄂᆞᆳ 雲霧ㅅ 소개 어느 사ᄅᆞ미 少微星이 잇다 니ᄅᆞ닌고

嚴公仲夏枉駕草堂兼携酒饌得寒字

竹裏行廚洗玉盤花邊立馬簇金鞍 대숩ᄉᆞ개 녀왓ᄂᆞᆫ 브어븨셔 玉盤ᄋᆞᆯ 싯ᄂᆞ니 곳ᄀᆞ이 ᄆᆞᄅᆞᆯ 셰니 金기ᄅᆞ매 모댓도다 非關使者徵求急自識將軍禮數寬 顏闔이 守陋閭ㅣ어ᄂᆞᆯ 魯君이 遣使徵之ᄒᆞ니라 此ᄂᆞᆫ 言嚴公이 親來訪也ㅣ라 非如魯君之遣使徵之니라 ○ 使者ㅣ 브ᄅᆞ려 어두믈 걷리ᄒᆞᆫ애 關係티 아니ᄒᆞ니 將軍의 禮數ㅣ 어위요ᄆᆞᆯ 내 아노라 百年地

僻柴門逈五月江深草閣寒 百年에 ᄡᅥ히 齒 僻ᄒᆞ니 柴門이

아ᄋᆞ라ᄒᆞ고 五月에 ᄀᆞᄅᆞ미 기프니 草閣이 서늘ᄒᆞ도다 看弄漁舟移白

日老農何有罄交懽 言嚴公이 弄漁舟ᄒᆞ야 以晝白日也ㅣ라 老農

은 甫ㅣ 自謂ㅣ라 ○ 고기 잡ᄂᆞᆫ ᄇᆡ 놀요ᄆᆞᆯ 보노라 ᄒᆞ야 白日이 올마가ᄃᆞ록 ᄒᆞ시란ᄃᆡ 만뎡

늘근 녀름짓ᄂᆞᆫ 노ᄆᆞᆫ 므스거시 이셔 서르 즐교ᄆᆞᆯ 다ᄒᆞ리오

王十七侍御掄이 許携酒至草堂 이기 논

奉寄此詩ᄒᆞ야 便請邀高三十五使君ᄒᆞ야

同到ᄒᆞ노라

老夫臥穩朝慵起白屋寒多暖始開 늘근노미누어

슈미편안ᄒᆞ야아ᄎᆞ미게을이니로니새지비치위할시덥거아비로서여ᄂᆞ누라

江鶴巧當幽徑浴隣雞還過短墻來 ᄀᆞᄅᆞ맷鶴鳥ㅣ工巧

히幽深ᄒᆞᆫ길흘當ᄒᆞ야沐浴ᄒᆞ고이웃제ᄃᆞᆰ도로뎌른다른디나오ᄂᆞ다

繡衣屢許攜家醞皂蓋能忘折野梅 繡衣ᄂᆞᆫ指侍御ㅣ오皂蓋

ᄂᆞᆫ二千石이皂蓋朱幡이니指使君ᄒᆞ니라○繡衣니ᄇᆞ니ᄌᆞ조지븻술가져오ᄆᆞᆯ許ᄒᆞ

ᄂᆞ니거믄蓋가지닌能히ᄆᆡ햇梅花것구믈니즐가

戲假霜威促山簡

須成一醉習池回 習池ᄂᆞᆫ見前註ᄒᆞ니라甫ㅣ借侍御霜臺之威ᄒᆞ야

督使君의來遊習池也ㅣ니習池ᄂᆞᆫ比草堂ᄒᆞ다○노ᄅᆞᆺ소로霸威로비러山簡ᄋᆞᆯ뵈아ᄂᆞ니모로매習池예ᄒᆞᆫ번醉코도라가몰일우라

、王竟携酒高亦同過共用寒字

臥病荒郊遠通行小徑難 病ᄒᆞ야누엣ᄂᆞᆫ거ᄎᆞᆫᄆᆡ히머니ᄉᆞᄆᆞᆺ차ᄃᆞ니ᄂᆞᆫ져근길히어렵도다

故人能領客携酒重相看 故人이能히소ᄂᆞᆯ거느려술가져다가시와서르보ᄂᆞ다

自媿無鮭菜空煩御馬鞍 鮭菜ᄂᆞᆫ魚菜總稱이라○鮭菜업수믈내븟그리노니ᄆᆞᆯ기ᄅᆞ마벗기어ᄆᆞᆯ로ᄆᆞᆯᄒᆞᆫ갓어ᄌᆞ러이ᄒᆞ라

移時勸山簡頭白恐風寒 甫ㅣ自註

高ㅣ姿云欲年이幾小오且不必小於我ㅣ 라ᄒᆞ니此句ㄴ戲之也ㅣ니라○時刻이옴 ᄃᆞ록山簡ᄋᆞᆯ술勸ᄒᆞ노니미니 셜시브르미서늘홀가전노라

、徐九少尹見過

晩景孤村僻行軍數騎來 唐이以少尹ᄋᆞ로 爲行軍長史ㅣ라 ○나죗ᄒᆡᆺ비체외로왼ᄆᆞ올히幽 僻ᄒᆞ니行軍두어ᄆᆞᆯᄐᆞ니오ᄂᆞᆺ다

交新徒有喜禮厚愧無才 새사괴요매혼갓깃부미이 실ᄉᆞ니로다날더브러禮數 ㅣ둗거우니쥐조업 수믈븟그리노라

賞靜憐雲竹忘歸步月臺 寂靜호몰賞玩ᄒᆞ야구루멧대ᄅᆞᆯ憐愛ᄒᆞ 고 리가몰니저ᄃᆞᆯ비쵠臺예셔건니ᄂᆞᆺ다

다 何當看花蘂欲發照江梅 欲徐少尹으로 復來賞梅也ㅣ라○어느 처긔 곳부리ᄅᆞᆯ 와 보실고 ᄀᆞᄅᆞ매 비취옛ᄂᆞᆫ 梅花ㅣ 프고져 ᄒᆞᄂᆞ다

ㆍ范二員外邈吳十侍御郁特枉駕闕展待聊寄此作

暫往比隣去空聞二妙歸 二妙ᄂᆞᆫ 指范吳二人ᄒᆞ다○잠간 갓가ᄋᆞᆫ 이우제 가노라 갯다가 ᄒᆞᆫ갓 二妙ㅣ 왯다가 도라가다 드로라 幽棲誠簡略衰白已光輝 言今蒙枉駕來訪호니 衰老애 復生光輝也ㅣ라○幽僻ᄒᆞᆫ 사ᄂᆞᆫ ᄡᅡ히 진실로 簡略ᄒᆞ니 ᄂᆞᆫ 기ᄉᆡᆫ 거기ᄒᆞ마 빗나도다 野外貧家遠

村中好客稀 드믓 밧긔 가난ᄒᆞᆫ 지비 머니 村ᅀᅩ엔 됴ᄒᆞᆫ 소ᄂᆡ 드므니라 論文或不愧重肯款柴扉 날와 글 議論호ᄆᆞᆯ 시혹 븟그리디 아니ᄒᆞᆫ댄 다시 柴扉 두드료ᄆᆞᆯ 肯許ᄒᆞᆯ가

九月一日過孟十二倉曹十四主簿兄弟

藜杖侵寒露蓬門啓曙烟 도ᄐᆞ랏 막대로 ᄎᆞᆫ 이스ᄅᆞᆯ 侵犯ᄒᆞ야 오나다 봇門을 새뱃ᄂᆡ예 여ᄂᆞ다 力稀經樹歇老困撥書眠 힘 져거 남ᄀᆞᆯ 디나 쉬오 늘거 잇버 그를 ᄇᆞ리고 ᄌᆞ오노라 秋覺追隨盡來

因孝友偏 南ㅣ今來孟氏家ᄃᆞ 重其孝友之偏篤也ㅣ니라○ᄆᆞᄋᆞᆯ히조차ᄃᆞ니리업수믈아노니오ᄃᆞ孝友ㅣ偏篤ᄒᆞ요ᄆᆞᆯ因ᄒᆞ얘니라 清談見滋味爾輩可忘年 孔融이與禰衡으로為忘年交ᄒᆞ니라○몰ᄀᆞᆫ말ᄊᆞ매滋味ᄅᆞᆯ보니너희무ᄅᆞᆫ어루나ᄒᆞᆯ닛고사괴욜디로다

、過客相尋

窮老真無事江山已定居 窮ᄒᆞᆫ늘구메眞實로이리업수니ᄆᆞᄅᆞᆷ뫼헤ᄒᆞ마사롤된一定호라 地幽忘盥櫛客至罷琴書 ᄯᅡ히幽深ᄒᆞ니낫시스며머리비수믈닛고손오나ᄂᆞᆯ거믄고ᄂᆞᆯ며글닐구믈마로라 掛

壁移筐果呼兒問煮魚 ᄇᆞᄅᆞ매 거렛ᄂᆞᆫ 구러빗 果實을 옮겨오고 아ᄒᆡ 블러 ᄉᆞᆯ믄 고기로 섯거 이받노라

時聞繫舟楫及此問吾廬 네 비 미야쇼몰 時로 듣다니 예 미처 와 내 지블 묻ᄂᆞ다

賓至

患氣經時久臨江卜宅新 患氣ᄂᆞᆫ 甫有肺疾也ㅣ라 ○ 肺氣를 ᄀᆞᆯ호미 時ㅣ 디나오라니 ᄀᆞᄅᆞ몰 臨ᄒᆞ야 卜築ᄒᆞᆫ 지비 새롭도다

喧卑方避俗疎快頗宜人 수우워리고 ᄂᆞᆺ가온 ᄃᆡ를 비야ᄒᆞ로 俗人ᄋᆞᆫ 避ᄒᆞ니 훤ᄒᆞ야 ᄌᆞ모 사ᄅᆞ미게 됴토다

有客過茅宇呼兒正葛巾 잇ᄂᆞᆫ 소니

새지븨디나오나ᄂᆞᆯ아히블러츠곳가로고티라ᄒᆞ노라自鉏稀菜甲小摘為情親늘蔬雖不多ᄒᆞ나爲客小摘ᄒᆞ니是見重客也ㅣ니라○벼미ᄆᆞᆫ드믄菜甲ᄋᆞᆯ져기ᄠᆞ더이바도ᄆᆞᆫᄠᆞ디親ᄒᆞᆫ몸爲ᄒᆞ애니라

、王十五司馬弟出郭相訪兼遺營草堂貲

客裡何遷次江邊正寂寥次ᄂᆞᆫ次舍ㅣ니라○客裡예ᄌᆞ모ᄅᆞᆯ마머므다니ᄀᆞᇫᄀᆞ이正히寂寥히이쇼라肯來尋一老愁破是今朝즐겨와ᄒᆞᆫ늘그니ᄅᆞᆯ尋訪ᄒᆞ니시름허러ᄇᆞ료미이오ᄂᆞᆳ아ᄎᆞ미로다憂我

營茅棟携錢過野橋 내 새 집 지우믈 시름ᄒᆞ야 도ᄂᆞᆯ 가져 미햇 ᄃᆞ리로 건너오도다

他鄕唯表弟還往莫辭遙 舅之子ㅣ為表弟라

○다ᄅᆞᆫ ᄆᆞᅀᆞᆯ힌 오직 表弟ᄯᆞᄅᆞ미니 오며 가ᄆᆞᆯ 머다 ᄒᆞ야 마디 말라

、聞斛斯六官未歸

故人南郡去去索作碑錢 言為人作碑ᄒᆞ고 去索潤筆之錢也ㅣ라 ○故人이 南郡에 가니 碑지은 갑ᄉᆞᆺ 도ᄂᆞᆯ 가 求索ᄒᆞᄂᆞᆺ다

本賣文為活翻令室倒懸 言其室中이 飢餓ᄒᆞ니 不啻倒懸也ㅣ라 ○본ᄃᆡ 글ᄅᆞᆯ ᄑᆞ라 사라시더니 도ᄅᆞ혀 지브로 ᄒᆡ여 갓ᄀᆞ로 ᄃᆞᆯ온 ᄃᆞᆺᄒᆞ도다

荆扉深蔓草土銼

冷踈烔 蜀人이謂釜爲鏊ㅣ니라○가서나모門원더츈ᄇᆞ리기펫고土鏊앤ᄃᆞ믄니서ᄂᆞᆯᄒᆞ도다

老罷依無賴歸來省醉眠 늘구메依賴홈업슨일란말오도라와醉ᄒᆞ야ᄌᆞ오로ᄆᆞᆯ솔피라

酬寄 律詩九首

寄題杜二錦江野亭 嚴武

漫向江頭把釣竿懶眠沙草愛風湍 속졀업시ᄀᆞᄅᆞᆷᄀᆞᇫ向ᄒᆞ야낛대ᄅᆞᆯ자밧ᄂᆞ니몰앳프레게을이ᄌᆞ오라ᄇᆞᄅᆞᆷ부ᄂᆞᆫ므를ᄉᆞ랑ᄒᆞ놋다

莫倚善題鸚鵡賦何須不著鵕鸃冠

補衮이 作鷫䴋賦ᄒᆞ다 鵕鸃ᄂᆞᆫ 卽鷩鳥ㅣ니 以羽로 飾侍中冠ᄒᆞᄂᆞ니라 ○鷫䴋賦ㅣ 잘ᄉᆞ믈 밀디 밀라 엿뎨 구티여 鵕鸃冠ᄋᆞᆯ ᄉᆞ디 아니ᄒᆞ노뇨 腹中書籍幽

時曬肘後醫方靜處看 郝隆이 七月七日에 ᄇᆡ 日中ᄒᆞ야 曬腹中書籍ᄒᆞ다 葛洪이 著肘後要急方ᄒᆞ니라 ○빗소갯 글월란 幽深ᄒᆞᆫ ᄲᅢ 볃 ᄢᅬ오 벋록 뒤헷 醫方으란 寂靜ᄒᆞᆫ ᄃᆡ셔 보놋다 興發會能馳駿馬終

須直到使君灘 魚復縣에 有使君灘ᄒᆞ니라 ○興이 나거든 모로매 能히 駿馬ᄅᆞᆯ ᄃᆞᆯ여 ᄆᆞᄎᆞ매 모로매 使君灘애 바ᄅᆞ 가리라

奉酬嚴公寄題野亭之作

拾遺曾奏數行書懶性從來水竹居 拾遺로 일즉 두
어 줈 그를 올이ᄋᆞ오니 게으른 性은 從來로 믈와 댓 서리예 사노라 奉引濫騎
沙苑馬幽棲眞釣錦江魚 拾遺ㅣ 掌供奉則 騎馬以奉引ᄒᆞᄂᆞ
니 奉引은 謂導駕也ㅣ라 ○奉引ᄒᆞ야 沙苑엣 ᄆᆞᄅᆞᆯ 너모 토니 幽僻ᄒᆞᆫ 사로매 錦江앳 고기
ᄅᆞᆯ 眞實로 낛노라 謝安不倦登臨費阮籍焉知禮法
踈 謝安오 比嚴武ㅣ오 阮籍은 甫ㅣ 自比ᄒᆞ다 登臨費ᄂᆞᆫ 費酒饌也ㅣ라 ○謝安이 登
臨ᄒᆞ얏 虛費ᄅᆞᆯ ᄌᆞ가티 아니ᄒᆞᄂᆞ니 阮籍은 禮法의 踈호ᄆᆞᆯ 어느 알리오 枉沐旌
麾出城府草茅無徑欲教鋤 旌麾ㅣ 城府로 나오ᄆᆞᆯ 금게니

부니ᄠᅳᆮ시리예길히업슬ᄉᆡ
히여곰ᄆᆡ이고져ᄒᆞ노라

贈杜二拾遺　高適

傳道招提客詩書自討論 더렛나그내詩書를스싀로討
論ᄒᆞᄂᆞ다傳ᄒᆞ 야나ᄅᆞᄂᆞ다 佛香時八院僧飯屢過門 부텻香이時로院에ᄃᆞᆫ오즁의 바ᄇᆞᆫᄌᆞ조門으로디나가ᄂᆞ다 聽法還應
難尋經剩欲翻 法을듣고도로ᄃᆞᆯ당이힐 후고經을ᄎᆞ자ᄆᆞᄌᆞᆼ翻譯
ᄒᆞ고져ᄒᆞ 거니라 草玄今已畢此後更何言 楊雄 이作
大玄經ᄒᆞ니라○大玄經草호ᄆᆞᆯ이제
ᄒᆞ미ᄆᆞᄎᆞ니이後에ᄯᅩ므슷말ᄒᆞ리오

、酬高使君

古寺僧牢落空房客寓居 甫ㅣ初到蜀ᄒᆞ야寓居浣花溪寺ᄒᆞ니라○녯뎌래즁이드므니뷘房애나그내브터사노라 故人供祿米隣舍與園蔬 故人이祿人ᄡᆞᆯ로주고이웃지비위안햇ᄂᆞᄆᆞᆯᄒᆞᆯ주ᄂᆞ다 雙樹容聽法三車肯載書 釋書에世尊이在雙樹間ᄒᆞ야說經ᄒᆞ다法華經에三車ᄂᆞᆫ法시렛ᄂᆞᆫ牛羊鹿三車ㅣ라○雙樹ㅅᄉᆞ이예法드로ᄆᆞᆯ容納ᄒᆞᄂᆞ니세술위예글시루믈肯許ᄒᆞ리아 草玄吾豈敢賦或似相如 揚雄이每作賦에擬司馬相如ᄒᆞ더니甫ㅣ謂著書則不敢이어니와爲賦則或能耳니라○

大玄經 草호ᄆᆞᆯ 내 엇뎨 구틔여 ᄒᆞ리오 賦ᄂᆞᆫ 시혹 相如ᄅᆞᆯ 호라

早發湘潭寄杜員外院長　　韋迢

北風昨夜雨江上早來涼 北風에 어젯바미 비오니 ᄀᆞᄅᆞᆷ 우희 일 서ᄂᆞᆯᄒᆞ미 오놋다

楚岫千峯翠湘潭一葉黃 湘潭縣이 屬潭州ᄒᆞ다 ○ 楚ㅅ 묏부리ᄂᆞᆫ 즈믄 峯이 프르고 湘潭앤 ᄒᆞᆫ 니피 누르렛도다

故人湖外少白首尙爲郞 故人이 ᄆᆞ롯 밧긔 져그니 셴머리예 오히려 郞이 ᄃᆞ외엿도다

相憶無南鴈何時有報章 서르 ᄉᆞ랑호매 南으로 올 그려기 업스니 어느 지긔 알욀 글워리 이실고

ㆍ酬韋韶州見寄

養拙江湖外朝廷記憶踈 江湖ㅅ밧긔와踈拙호모몰養ᄒᆞ노니朝廷에셔記錄ᄒᆞ야ᄉᆞ랑ᄒᆞ리드므도다

深慙長者轍重得故人書 上句ᄂᆞᆫ言無人이見過也ㅣ라○長者의술윗자최ᄅᆞᆯ기피붓그리다니다시故人외書信을어두라

白髮絲難理新詩錦不如 上句ᄂᆞᆫ甫ㅣ自謂오下句ᄂᆞᆫ美韋詩ᄒᆞ다○셴머리ᄂᆞᆫ시ᄅᆞᆯ다ᄉᆞ료미어려운ᄃᆞᆺᄒᆞ니새그른錦繡도ᄅᆞᆫ디몯ᄒᆞ리로다

雖無南過鴈看取北來魚 비록南으로디나갈그려기업스나北으로올고기ᄅᆞᆯ보리라

杜員外兄垂示詩因作此寄上 郭受

新詩海內流傳困舊德朝中屬望勞 新詩은 남 指南ᄒᆞ다○새 그를 海內예셔 流傳 舊德ᄒᆞ몰이 치ᄒᆞᄂᆞ니 녯 德을 朝廷人 안해셔 브터 ᄇᆞ라오몰 잇비ᄒᆞᄂᆞ다 郡邑地卑饒霧雨江湖天闊足風濤 ᄆᆞᅀᆞᆳ 따히 ᄂᆞᆽ가오니 雲霧와 비왜 하고 ᄀᆞᄅᆞ매 하ᄂᆞᆯ히 어위니 ᄇᆞᄅᆞᇝ 믓겨리 하도다 松醪酒熟傍看醉蓮葉舟輕自學操 남 指言甫也ㅣ라○松醪酒ㅣ니거든 ᄆᆞ이셔 ᄂᆞ미 醉ᄒᆞ몰 보고 蓮葉비 가비얍거든 스싀로 잡달ᄒᆞ몰 ᄇᆡ호ᄂᆞ다 春興不知兄幾首

衡陽紙價頓能高言傳寫甫詩而紙價ㅣ爲之貴也ㅣ라○븘與ㅣ

에아디몯게라몯잇멋마릿그를지므니오衡陽앳죠핫비디다能히놉거니라

酬郭十五判官 受

才微歲老尚虛名臥病江湖春復生지죄젹고나히

늘근거릐오히려뷘일훔미잇ᄂᆞ니江湖애病ᄒᆞ야누구니보미ᄯᅩ나놋다藥裏

關心詩總廢花枝照眼句還成藥ᄉᆞ거시ᄆᆞᄋᆞ매연쳐시

니그를다廢ᄒᆞ다니곳가지누늘비취어늘글句를도로일우노라只同燕石

能星隕自得隋珠覺夜明宋人愚人이得燕石ᄒᆞ야以爲實ㅣ

라ᄒᆞ니라左傳에隕石于宋五ᄒᆞ니隕星也ㅣ라隋珠ᄂᆞᆫ隋侯의夜明珠也ㅣ라南ㅣ以二石으로比其詩而隋珠로比郭詩ᄒᆞ다○오직燕ㅅ돌과ᄒᆞᆫ가지라能히ᄇᆞ리던ᄃᆞᆺᄒᆞ니스싀로隋ㅅ구스를어더夜明珠인돌아노라

喬口橘洲風浪促

繫帆何惜片時程 喬口橘洲ᄂᆞᆫ皆衡荊之地니ᄡᅳᄂᆞᆫ欲郭之來訪也ㅣ라○喬口와橘洲에ᄇᆞᄅᆞᆷ믌겨리조ᄇᆞ니ᄇᆡᆺ돗ᄀᆞᆯᄆᆡ여셔엇뎨片時옛길ᄒᆞᆯ앗기ᄂᆞ뇨

酬別杜二 嚴武

獨逢堯典日再觀漢官儀 書序에堯ㅣ遜位于舜ᄒᆞ야作堯典이라ᄒᆞ고光武紀예今日에復見漢官威儀ᄒᆞ라ᄒᆞ니此ᄂᆞᆫ言代宗之立ᄒᆞ다

○ᄒᆞ올로 堯典ㅅ 나ᄅᆞᆯ 맛나러

셔 漢官ㅅ 威儀ᄅᆞᆯ 다시 보라 孝放風霜

動空慜雨露私 此ᄂᆞᆫ 言無松栢之節이오 媿受君恩이니라 ○風霜

녯 세유므란 비호ᄃᆡ 블ᄒᆞ고 雨露ㅅ 恩私ᄅᆞᆯ ᄒᆞᆫ갓 븟그리노라 夜鍾淸萬

戶曙漏拂千旗並向殘庭謁俱承別館追

追言會秦關拾遺時事ᄒᆞ니라 ○바ᄆᆡ 붑 소리ᄂᆞᆫ 萬戶애 ᄆᆞᆰ고 새뱃 漏刻앤 즈믄 旌

旗ㅣ 다 잇ᄂᆞ다 ᄅᆞ와 다ᄆᆞᆫ 뜰ᄒᆞᆯ 向ᄒᆞ야 가 뵈ᄋᆞᆸ고 다 別館애 追隨ᄒᆞᄆᆞᆯ 承奉ᄒᆞ라

斗城憐舊路 鍋水惜歸期 長安城을 號北斗ㅣ라 魏文帝

至譙ᄒᆞ야 兄弟駐馬渦水ᄒᆞ야 書鞭以賦 ᄒᆞ니 此ᄂᆞᆫ 借言與甫別也ㅣ라 ○斗城에

녯길흘ᄉᆞ랑코蝸水에도 라가논期約을슬노라 峯樹遲相伴江

雲更對垂 뫼햇남ᄀᆞ로서르벋ᄒᆞ고ᄆᆞ ᄅᆞ맷구루믄ᄯᅩ對ᄒᆞ야드렛도

다 試回滄海棹莫妒敬亭詩 敬亭이在宣 城ᄒᆞ니謝眺

ㅣ作敬亭詩ᄒᆞ니라○滄海옛비출비 ᄅᆞ수도ᄅᆞ고敬亭ㅅ그를새오디말라 秖

是書應寄無忘酒共持 오직이書信을낭 당이브톨디니수

를다몯디니던 이롤닛디말라 但令心事在未肯鬢毛衰

오직ᄆᆞᅀᆞᆷ맷일로ᄒᆡ여두고귀믿터리 의衰殘ᄒᆞᆫ모란肯許티마롤디니다 最

悵巴山裡清猿惱夢思 武ㅣ自註昔會秦 關ᄒᆞ고今別巴嶺

ᄒᆞ노라 ○ 巴山ㅅ 소ᄅᆡ로 ᄂᆞ나비 ᄉᆔ멧 ᄉᆞ랑호ᄆᆞᆯ 어즈러유믈 안직 슬노라

惠貺 古詩一首 律詩三首

太子張舍人遺織成褥段

客從西北來遺我細織成 소니 西北으로조차 와 나ᄅᆞᆯ ᄀᆞᄂᆞ리 ᄧᆞᆫ 일운 거슬 주ᄂᆞ다

開緘風濤湧中有掉尾鯨 此聯與下聯은 皆敘織段之紋ᄒᆞ다 ○ 열군 거슬 여로니 ᄇᆞᄅᆞ맷 믌거리 솟ᄂᆞ니 가온ᄃᆡ ᄭᅩ리 놀이ᄂᆞᆫ 고래 잇도다

逶迤羅水族瑣細不足名 니위여 水族이 버릿ᄂᆞ니 ᄒᆞᆨ뎌근 거ᄉᆞᆫ 足히 일홈ᄒᆞ디 몯ᄒᆞ리로다

客云充君褥承君終宴

榮 소니논오ᄃᆡ 그 뒷 禰ᄋᆡᆫ ᄆᆞ로 매치와 그듸ᄋᆡ 이바디 몯ᄃᆞ록 빗나 몯 承奉ᄒᆞ노라

空堂魑魅走高枕形神清 言鬼神이 驚駭此物也ㅣ라 ○ 뷘 지븨 魑魅ㅣ 므의여 도ᄂᆞ니 베개ᄅᆞᆯ 노피 벼여 누우니 몸과 ᄆᆞᅀᆞᆷ괘 ᄆᆞᆰ도다

領客珍重意顧我非公卿 소니 珍重ᄒᆞᆫ ᄠᅳ든 반고져 ᄒᆞ건마ᄅᆞᆫ 내 모ᄆᆞᆯ 도라보니 公卿이 아니로다

留之懼不祥施之混柴荊 言此物이 混雜柴荊之門ᄒᆞ야 不相稱也ㅣ라 ○ 머믈워 두면 不祥ᄒᆞᆯ가 저프고 펴 ᄡᅳ면 柴荊에 섯그리로다

服飾定尊卑大哉萬古程 言尊卑服用이 各有程式ᄒᆞ니 甫ㅣ 卑賤故로 不受錦段也ㅣ라 ○ 服飾이 尊卑ᄅᆞᆯ 一定ᄒᆞᄂᆞ니 크다 萬古앳 法이니

다 今我一賤老短褐更無營煌煌珠宮物寢處禍所嬰 珠宮은指言龍宮ᄒᆞ니此乃貴人의所用이니賤老ㅣ愛之면恐嬰殺禍也니라○이제버ᄂᆞᆫ賤ᄒᆞᆫ늘근노ᄆᆡ뎌른누비오시오또營求ᄒᆞᆯ이업수니빗난珠宮엣거슬자여안ᄌᆞ면哭禍애버므롤배니라 嘆息當路子干戈尚縱橫掌握有權柄衣馬自肥輕 當路ᄂᆞᆫ當要路之人이라○嘆息ᄒᆞ되길흘當ᄒᆞ얏ᄂᆞᆫ사ᄅᆞ미干戈ㅣ오히려어즈럽거ᄂᆞᆯ또내權柄이잇고옷과ᄆᆞᆯ왜스싀로ᄉᆞᆯ지고가비압도다 李鼎死岐陽實以驕貴盈來瑱賜自盡氣豪且阻兵 李鼎이爲鳳翔尹及秦隴觀察使ᄒᆞ니

라 來瑱이 爲襄陽節度使ㅣ어늘 代宗이 賜死ᄒᆞ시니라 ○李鼎이 岐陽애셔 주구믄 眞實로 驕貴ㅣ 盈滿호ᄆᆞ로ᄡㅣ오 來瑱을 절로 주구믈 주샤믄 氣運이 豪華코 兵을 이들셔ㅣ라

昔聞黃金多坐見悔吝生奈何田舍翁受此厚貺情 田舍翁은 甫ㅣ라 ○뎨드로니 黃金이 하면 안자셔 뉘웃부미 나ᄆᆞᆯ 보ᄂᆞ니라 ᄒᆞ니 엇뎨 바 田舍옛 한아비ᄂᆞ이 厚히 주ᄂᆞᆫ ᄠᅳ들 바ᄃᆞ리오

錦鯨卷還客始覺心和平 錦繡옛 고래ᄅᆞᆯ 거더 소ᄂᆞᆯ 도로 주고 아ᄆᆞᄋᆞ믜 和平호ᄆᆞᆯ 비롯 아로라

振我麄席塵媿客茹藜羹 내 사오나온 돗긧 드트를 벼러 안치고 소닉도 ᄃᆞ랏羹 머구믈 붓그리노라

、孟倉曹ㅣ步趾ᄒᆞ야領酒醬二物滿器ᄒᆞ야

見遺老夫ᄒᆞᄂᆞ다

楚岸通秋屐胡床面夕畦 楚ㅅ두들게ᄀᆞᅀᆞᆳ 발지시너ᄉᆞᄆᆞ차 오나ᄂᆞᆯ胡床ᄋᆞᆯ나죗받 이러ᄋᆞᆯ面ᄒᆞ야노호라

藉糟分汁滓甕醬落提攜 藉糟ᄂᆞᆫ以茅로覆藷而洿之ᄒᆞ야分汁 滓也ㅣ라○쥐어이ᄅᆞᆯᄧᅡ과ᄌᆞ의와 ᄅᆞᆯᄂᆞᆫ호도소니도ᄀᆞᆺ醬ᄋᆞᆫ 자바다가디여ᄂᆞᆫ、다

飯糲添香味朋來有醉泥 子ᄌᆞᆫ䀆바배곳다ᄋᆞᆫ아시더으니번 오애泥虫ᄆᆞ티醉ᄒᆞ미이시리로다

理生那免俗方法報山妻 言酒醬造法을삼 其家人也ㅣ라○

사ᄅᆞᆷ일다ᄉᆞ료ᄆᆞᆯ이ᄂᆞᆫ辭ᄅᆞᆯ보ᄒᆞ리ᄂᆞ方法을뫼헷겨집더브러말외노라

寄韋有夏郎中

省郎憂病士書信有柴胡 謂韋郎中이憂甫之病ᄒᆞ야送柴胡藥也ㅣ라○省郎이病ᄒᆞᆫ士ᄅᆞᆯ시름ᄒᆞ야書信에柴胡藥이조차잇도다 飮子頻通汗懷君想報珠 言柴胡ㅣ可煎爲飮ᄒᆞ야服之ᄒᆞ면通汗也ㅣ라○飮子ㅣᄌᆞ조ᄯᆞᆷ이ᄉᆞᄆᆞᆺ나ᄂᆞ니그듸ᄅᆞᆯᄉᆞ랑ᄒᆞ야구스ᄅᆞᆯ로갑고져ᄉᆞ치노라 親知天畔少藥餌峽中無 親히아논버디하ᄂᆞᆳᄀᆞᄋᆡ져그니藥餌ᄂᆞᆫ峽中에업ᄃᆞ다 歸楫生衣臥春鷗洗翅呼 甫ㅣ未得歸ᄒᆞ니楫이生

쯤衣而바ᄒᆞ야不用也ㅣ라○도라갈비쵼오시나누옛고봀ᄅᆞᆯ여기ᄂᆞᆫ놀개롤싯고우ᄅᆞ놋다

猶聞上急水早作取平途 ᄲᆞᄅᆞᆫ믈로올아가ᄆᆞᆯ오히려드ᄅᆞ노니平ᄒᆞᆫ길取ᄒᆞ몰일ᄒᆞ라

萬里皇華使爲僚記腐儒 詩예皇皇者華ᄂᆞᆫ遣使臣也ㅣ니指韋ᄒᆞ다腐儒ᄂᆞᆫ甫ㅣ라○萬里옛皇華使ㅣ僚友ㅣ라ᄒᆞ야서근선비롤記憶ᄒᆞ놋다

謝嚴中丞送青城山道士乳酒一瓶

山瓶乳酒下青雲氣味濃香幸見分 뫼ㅅ瓶엣乳酒ㅣ프른구룸서리로서ㄴ려오니氣味아ᄌᆞ기틂거이곳다온거ᄉᆞᆯ幸혀ᄂᆞᆫ호몰뵈도다鳴

鞭走送憐漁父洗盞開嘗對馬軍 漁父ᄂᆞᆫ南ㅣ라 軍用ㅣ謂駐使騎ᄅᆞᆯ爲馬軍이니 嚴公이 使騎兵ᄒᆞ야 送酒也ㅣ라○채ᄅᆞᆯ 텨 ᄃᆞᆯ여 보내야 漁父ᄅᆞᆯ 어엿비 너기니 盞 시서 여러 맛보몬 馬軍을 對ᄒᆞ노라

送別上 古詩十九首

送殿中楊監赴蜀見相公 相公ᄋᆞᆫ 劍南節度使 杜鴻漸이라

去水絕還波洩雲無定姿人生在世間聚散亦暫時 上二句로 興聚散不常ᄒᆞ다○가ᄂᆞᆫ 므른 도라올 믌겨리 긋고 펫ᄂᆞᆫ 구루

믄一定ᄒᆞᆫ양저업스니라人生애世間애이 셔모ᄃᆞ락ᄒᆞ르라호이任아니한ᄢᅴ로다

離別重相逢偶然豈足期 여희엿다가다시 서르맛보니偶然 히그리ᄒᆞ디웨어ᄂᆞ 足히期約ᄒᆞ리오

送子淸秋暮風物長年悲 그듸롤ᄆᆞᆯᄀᆞᆫᄀᆞᅀᆞᆳ나조ᄒᆡ보내요 니風物게나한사ᄅᆞ미슬프도다

勳業邦家頻出師 言豪俊之士ㅣ當立功業 而國家ㅣ頻出師征伐ᄒᆞ 시ᄂᆞ니楊賢은正宜勉力ᄒᆞ야以立功也ㅣ 니라○豪俊은勳業일우미貴ᄒᆞ니나라히 ᄌᆞ조軍師ᄅᆞᆯ 내시ᄂᆞᆺ다

相公鎭梁益軍事無子遺 子遺 立半 맛곰가지니도기ᄂᆞ니입닷아리니此ᄂᆞᆫ言 軍中에擧無遺策也ㅣ라○相公이梁益에

鎭ᄒᆞ시니軍中人이리져解榻再見今用才

고마ᄃᆞ기투미업도다

復擇誰言相公이待揚監을如陳蕃之解榻待徐稺也ㅣ라又言今當用才之時ᄒᆞ야舍揚監而擇誰乎ㅣ리오○榻ᄋᆞᆯ우믈아시이제보리로소니ᄌᆡ조ᄅᆞᆯ ᄂᆡ에任누ᄅᆞᆯᄀᆞᆯ히리오況子已高位爲郡得固辭ᄒᆞ믈며그듸ᄒᆞ야位ㅣ나푸니ᄀᆞ올ᄒᆞ요몰시러곰구디마라리아難拒供給費請哀漁奪

私言軍興之際예吏因供給而侵奪下民이如漁然ᄒᆞ니揚監은宜愼之니라○供給ᄢᅦ盡費ᄅᆞᆯ믈리ᄋᆡ도이어려우니請ᄒᆞ도앗ᄂᆞᆫ私情을슬피너기가라니干戈未甚

息紀綱正所持干戈ㅣ甚히ᄎᆞ디아니ᄒᆞ니紀綱을正히가져슐디니라

泛舟巨石橫登陸草露滋山門日易夕當念
居者思 此ᄂᆞᆫ言入蜀道路之險難ᄒᆞ야셔勉 錫監의當念居者之思ᄒᆞ야益以愼
其行也ㅣ니居者ᄂᆞᆫ甫ㅣ自謂니라○비ᄡᅧ 위가매큰돌히빗겻고무트로올아가매프
른이스리저셋고山門에ᄒᆡ수이나조히ᄃᆞ 외ᄂᆞ니잇ᄂᆞᆫ사ᄅᆞ이ᄉᆞ랑호ᄆᆞᆯ반ᄃᆞ기念ᄒᆞ

湘江宴餞裴二端公赴道州

白日照舟師朱旗散廣川 볼ᄀᆞ히빗옛軍師 론비취엿ᄂᆞ니블
근旗ᄂᆞᆫ너븐내 해흐럿도다 羣公餞南伯肅肅秩初筵 南 伯

은 道州ㅣ為南邦伯이라 肅肅은 敬也ㅣ라
○群公이 南伯을 餞送ᄒᆞᄂᆞ니 嚴肅히 처엄
돗거나 아가ᄆᆞᆯ 次第로 ᄒᆞ놋다 鄙夫奉末眷佩服自早年 鄙夫
ᄂᆞᆫ 甫ㅣ라 ○더러운 노미 그 뒷 春顧ᄒᆞ몰 奉
承ᄒᆞ니 그ᄃᆡᄅᆞᆯ 佩服호ᄆᆞᆯ 져믄 ᄢᅴ브테니라
義均骨肉地懷抱罄所宣 骨肉ᄋᆞᆫ 謂義如兄弟之親也ㅣ라○
義ㅣ 아ᅀᆞᆷ과 ᄀᆞᄐᆞᆫ ᄯᅡ해 ᄀᆞᅀᆞᆷ비펴 닐오ᄆᆞᆯ 다ᄒᆞ노라 盛名富事業無取
媿高賢 言立功業ᄒᆞ야 以著盛名而無愧於高賢也ㅣ라○盛ᄒᆞᆫ 일후메 事業이
ᄒᆞ니 高賢의게 붓그러우ᄆᆞᆯ 取티 아니ᄒᆞ니라 不以喪亂嬰保愛金
石堅 言不以嬰於喪亂而爽其名節ᄒᆞ고 宜保之若金石之固ㅣ니라○喪亂ᄋᆞ로

벼버므리디말오쇠외돌 ᄀ티구두믈保愛ᄒ라 計拙百僚下氣蘇

君子前 此ᄂ甫ㅣ自謂라이百僚ㅅ아래셔 해야효미疎拙ᄒ나氣運이君子의

앏픠 요리 會合苦不久哀樂本相纏 도다쇼미 심히오라

디아니ᄒ니슬프며즐거우 미本來서르버므렛도다 交遊颯向盡宿

昔浩茫然 사괴야노니시루미衰颯ᄒ야업 스매向ᄒ니녜사괴던이리키가

ᄋ라ᄒ 도다 促觴激百慮掩淚潺湲 술잔뵈아 머구메운

혜아료미니르와다나ᄂ니그 치눌러도눈므리흐르놋다 熱雲集曛黑

闕月未生天 더운구루미나죗어드운디ᄅ 두난이즌ᄃ리하ᄂ체나디몯

ᄒᆞ얫도다 白團爲我破 華燭蟠長烟 白團은 扇也ㅣ라 ○ 부체

나ᄅᆞᆯ 爲ᄒᆞ야 허ᄂᆞ니 빗난 燭ㅅ 브르ᄂᆞᆫ 긴 ᄂᆡ 서렛도다 鴰鶡催明星 解袂

從此旋 鴰鶡은 求旦鳥也ㅣ라 ○ 鴰鶡鳥ㅣ 새벼ᄅᆞᆯ 뵈아ᄂᆞ니 ᄉᆞ매ᄅᆞᆯ 글어 길로

브티도라 가놋다 上請減甲兵 下請安井田 永念病

渴老 附書遠山巓 病渴老ᄂᆞᆫ 甫ㅣ니 望寄書信也ㅣ라 ○ 우흐로 請호

ᄃᆡ 甲兵을 덜오 아래로 請호ᄃᆡ 井田을 便安히 갈에 ᄒᆞ고 消渴ㅅ 病ᄒᆞ논 그ᄂᆞᆯ 기리 ᄉᆞ랑

ᄒᆞ야 먼 묏 그테 그를 브려 보내라

陪章留後惠義寺餞嘉州崔都督赴州

中軍待上客令肅事有恒中軍은主將이니指章留後ㅣ오上客은指崔都督이라○中軍이노푼소놀기들우니法令이嚴肅ᄒᆞ야이리덛덛호미잇도다

前驅入寶地祖帳飄金繩寶ㅅ地ᄂᆞᆫ指僧寺ㅣ라祖餞之地예設帳幕曰祖帳이라釋書에琉璃爲地ᄒᆞ고有八交道ᄒᆞ니黃金爲繩이니라○말뫼도라가ᄂᆞᆫ사ᄅᆞᆷ이寶地예드니祖帳앳金노히부치ᄂᆞ다

南陌既留歡茲山亦深登南녁두듨게셔ᄒᆞ마머므러歡讌ᄒᆞ고이뫼해ᄯᅩ기피登臨ᄒᆞ노다

清閒樹杪磬遠謁雲端僧몰ᄀᆞᆫ소리란나못그텟磬子롤드르리로소니구룺그텟즁을머리와뵈ᄂᆞ다

回策匪新岸所攀仍舊

藤言所行岸所攀藤이皆舊所見也ㅣ라○막대로 ᄃᆞᆫ니오매새두들기아니ᄒᆞ더위잡ᄂᆞᆫ거시치조로녯藤蘿ㅣ로다

耳激洞門飆目存寒谷氷 귀옌洞門엣ᄇᆞᄅᆞ미니르왇고누ᇇ치ᄌᆞᆷ못ᄀᆞᆯ어르미잇도다

出塵閟軌躅畢景遺炎蒸 ᄃᆞ트레나술윗자최깁스위니비못ᄃᆞ록티위ᄢᅳ도ᄃᆞᆺ호미겁도다

永願坐長夏將衰棲大乘 釋書에如來說ᄅᆞᆯ謂之大乘法이니此ᄂᆞᆫ指言僧寺ᄒᆞ니라○기리願ᄒᆞᄃᆡ긴녀르메안자ᄡᅥ將次ㅅ衰老ᄒᆞ애大乘에棲止ᄒᆞ얘고져ᄒᆞ노라

羇旅惜宴會艱難懷友朋 나그내로ᄃᆞᆫ뇨매宴會ᄅᆞᆯ앗기고艱難애버들ᄉᆞ랑ᄒᆞ노라

勞生共幾何離恨

兼相仍이ᄂᆞ가니한人生애ᄯᅩ여희노라니롤시라○人生올잇비ᄃᆞᆫ뇨모다못ᄒᆞ연마만고여희요맷술후미조차서르지즈ᄂᆞ다

別蔡十四著作

賈生慟哭後寥落無其人賈誼上疏曰可爲痛哭者一이라ᄒᆞ다○賈生이설워운後에ᄃᆞ므려그런사ᄅᆞ미업도다安知蔡夫子高義邁等倫蔡夫子의노ᄑᆞᆫ義ㅣᄆᆞ됸무레너무믈어느알리오獻書謁皇帝志已清風塵皇帝ᄂᆞᆫ肅宗이라○그를올이ᄇᆞᆯ고皇帝를뵈ᄋᆞ오니ᄠᅳ데ᄒᆞᆫ마風塵온믈기고져ᄒᆞᄂᆞ니라流涕灑丹極萬乘爲酸

辛눈므를 흘려 冊極에 ᄡᅥ리니 님그미 爲ᄒᆞ야 슬피너기시니라 天地則瘡

痍朝廷多正臣 天地옛 사ᄅᆞ미 헐므으나 朝廷엔 正ᄒᆞᆫ 臣下ㅣ 하도다

異才復間出周道日惟新 言肅宗이 得叅著作ᄒᆞ야 ᄡᅥ 成中興之治니라 ○ 奇異ᄒᆞᆫ 지죄 ᄯᅩ 섯거 나니 周王ㅅ 治道ㅣ 날로 새롭도다 使蜀見

知己別顏始一伸 蜀애 ᄇᆞ리여와 몸 알리를 보아 여희엿던 ᄂᆞᄎᆞᆯ 비릇 ᄒᆞᆫ번 펴니라

主人薨城府扶櫬歸咸秦 言著作이 扶蜀節度使郭英乂靈櫬ᄒᆞ야 歸咸京也ㅣ라 ○ 主人이 城府에셔 주거늘 靈櫬을 扶持ᄒᆞ야 咸秦으로 가ᄂᆞᆺ다

巴道此相逢會我病江濱 巴山ㅅ 길헤 잉어긔

서르마조보니마초가내ᄆᆞᄅᆞᆯ々리病ᄒᆞ야쇼라憶念鳳翔都聚散

俄十春甫ㅣ以與蔡로昔相會於鳳翔也ㅣ로다○鳳翔都ᄅᆞᆯᄉᆞ랑ᄒᆞ니모도여

ᄒᆞ로이은득열히로다我衰不足道但願子意陳稍令

社稷安自契魚水親蜀先主ㅣ曰吾之有孔明이猶魚之有水ㅣ니

라此는ᄡᅥ孔明으로ᄡᅥ蔡也ㅣ라○내의衰老ᄒᆞ모ᄆᆞᆯ足히니ᄅᆞ디마ᄅᆞᆯ디니오직願ᄒᆞ듸

그듸ᄠᅳ들베퍼셔ᄀᆞ社稷ᄋᆞ로히여곰便安케ᄒᆞ야ᄉᆞ싀로ᄑᆞ기와ᄅᆞᆯ왜親ᄒᆞᆫ돗ᄒᆞ몰契合

ᄒᆞ라我雖消渴甚敢忘帝力勤尚思未朽骨復

觀耕桑民내비록消渴ㅅ病이甚ᄒᆞ나님그미히ᄅᆞᆯ브즈러니ᄒᆞ샤몰敢히니

즈리 오히려 ᄉᆞ랑ᄒᆞ되 ㅐ側석디 아니ᄒᆞ야 셔반갈며 누어 치ᄂᆞᆫ 百姓을 任보고 저ᄒᆞ노라

積水駕三峽 浮龍倚長津 言蔡의 乘舟ᄒᆞᆫ 征處ㅣ라 ○ 담사ᄒᆞᆫ 므리 三峽에 ᄆᆞᄅᆞ딜엇고 ᄠᅳᆫ 龍이 긴 ᄂᆞᆯ의 지엿도다

揚舲洪濤間 仗子濟物身 큰 믌결ᄉᆞ이예 비ᄅᆞᆯ 며 가ᄂᆞ니 그듸의 物 거리치ᄂᆞᆫ 모ᄆᆞᆫ 依仗ᄒᆞᄂᆞᆺ다

鞍馬下秦塞 王城通北辰 下秦塞ᄂᆞᆫ 言出陸ᄒᆞ니라 北辰은 猶帝居ᄒᆞ다 ○ 鞍馬로 秦塞로 ᄂᆞ려가면 王城은 北辰에 通ᄒᆞ니라

玄甲聚不散 兵久食恐貪 玄甲은 鐵甲也ㅣ라 比ᄂᆞᆫ 言崔旰이 殺英乂而蜀中이 亂也ㅣ니라 ○ 거믄 甲이 모다 흗디 아니ᄒᆞ니 兵卒이 오라 바비 貪ᄒᆞᆯ가 전노라

窮谷無粟帛使者來相因若憑南轅使書札

到天垠 窮谷天垠요 指夔州ㅣ라 此ᄂᆞᆫ 冀著作의 憑南來使而寄書信也ㅣ라○기픈 묏고래 조콰 깁괘 업건마ᄅᆞᆫ 使者ㅣ 오ᄆᆞᆯ 서르 因ᄒᆞᄂᆞ니 萬一 南녀크로 술위 ᄐᆞ오ᄂᆞᆫ 使者ᄅᆞᆯ 브티면 글워리 하ᄂᆞᆯ ᄀᆞ애 오리라

送高三十五書記十五韻 高適이 以封丘尉로 爲河西節度使哥舒翰의 書記ᄒᆞ니라

崆峒小麥熟且願休王師 崆洞山이 在臨洮ᄒᆞ니라 言今麥이 正熟ᄒᆞ니 願休兵ᄒᆞ야 使邊民으로 得穫麥也ㅣ니라○崆峒애 밀히 니겟ᄂᆞ니 님금 軍

師ᄅᆞᆯ 마ᄅᆞ시마 ᄃᆡ여 願ᄒᆞ노라 請公問主將焉用窮荒爲 言向必用武窮荒無用之地而使民妨農이리오 ○請ᄒᆞᆫᄃᆞᆫ 그ᄃᆡᄂᆞᆫ 主將ᄭᅴ 무르라 엇뎨 ᄡᅳ곰 窮荒ᄋᆞᆯ ᄒᆞ리오 飢鷹未飽肉側翅隨人飛 以比適의官薄而赴翰幕職ᄒᆞ다 ○주린 매ᄂᆞᆫ 고기ᄅᆞᆯ 비브르 먹디 몯ᄒᆞ얀 ᄂᆞᆯ갤 기우려 사ᄅᆞᄆᆞᆯ 조차 ᄂᆞᄂᆞ니라 高生跨鞍馬有似幷州兒 幷州ㅣ逼近羌胡ᄒᆞ야其俗이習於馳射ㅣ니라 ○高生이 鞍馬ᄅᆞᆯ ᄐᆞ니 幷州ㅅ 아ᄒᆡ ᄀᆞᆮ도다 脫身簿尉中始與捶楚辭 簿尉ᄂᆞᆫ主捶楚有罪者也ㅣ라 ○簿尉ㅅ 소개셔 몸 바사나 비릇 채질호ᄆᆞᆯ 마도다 借問今何官觸熱向武威答云一

書記所媿國士知遇 豫讓曰智伯이以國士로遇我ㅣ니라○묻노라이제므슷벼슬로ᄂᆞ뇨對荅ᄒᆞ야닐오ᄃᆡᄒᆞᆫ書記로니붓그리더위로다딜어武威를向ᄒᆞ논바ᄂᆞᆫ國士ㅣ라ᄒᆞ야아로비니라

人實不易知更須愼其儀 言適이雖蒙國士禮遇ㅣ나當愼其威儀ᄒᆞ야無恃才而失禮於主將也ㅣ니라○사ᄅᆞᄆᆡᄆᆞᅀᆞᄆᆞᆯ眞實로수이아디몯ᄒᆞ리니任코로매그威儀를삼갈디니라

十年出幕府自可持旌麾 旌麾ᄂᆞᆫ主將ᄋᆡ所建이니라○열힌예幕府에셔나면ᄉᆞᄉᆡ로可히旌麾를가디리라

此行旣特達足以慰所思 言特旌麾則可謂特達而慰甫의所懷之情也이니라○이ᄃᆡ이ᄒᆞ마特達ᄒᆞ리니足히

벼ᄋᆞ리ᄉᆞ랑ᄒᆞ몰 慰勞ᄒᆞ리로다 男兒功名遂亦在老大時

男兒의功名일우미 늘근ᄢᅵ도외ᄂᆞ니라 또 常恨結驩少各在天

一涯又如參與商慘慘中腸悲 參商二星이 各居一方故

ᄅᆞᆫ比人之別離ᄒᆞ니라ᄋ懽樂위조믜져거제 여곰하잆ᄒᆞᄆᆞᄋᆡ이立몰당샹ᄉᆞᆯ타니在象

과商ᄋᆞᆫᄒᆞ니慘慘 히中腸ᄋᆞᆯᄉᆞᆯ노라 驚風吹鴻鵠不得相追隨

鴻鵠ᄋᆞᆫ로氏適而南ㅣ恨其不得相追從也 ㅣ라ᄋ몰란ᄇᆞᄅᆞ미鴻鵠ᄋᆞᆯ부ᄂᆞ니시러곰

서르조ᄎᆞ 몰몯ᄒᆞ라 黃塵翳沙漠念子何當歸 누른드 트리沙

漠애ᄀᆞ렛ᄂᆞ니ᄉᆞ랑ᄒᆞ노니 그ᄃᆡ눈어느저긔도라올다 邊城有餘力早

寄從軍詩 王术이有從軍詩ᄒᆞ니라○邊城에나ᄂᆞᆫ님곳잇거든從軍詩ᄅᆞᆯ일브터보내라

送長孫九侍御赴武威判官

驄馬新鑿蹄銀鞍被來好 漢人桓典이爲御史ᄒᆞ야常乘驄馬ᄒᆞ니라○驄馬ㅣ새려구블괏도소니銀기르마ᄅᆞᆯ니퍼매됴토다 繡衣黃白郎騎向交河道 비치누르며흰繡衣니븐郎이타交河ㅅ길로向ᄒᆞ놋다

問君適萬里取別何草草 草草ᄂᆞᆫ言不款曲也ㅣ라○무ᄅᆞ노라그듸ᄂᆞᆫ萬里ᄅᆞᆯ가되여희욤ᄒᆞ몰엇뎨草草히ᄒᆞᄂᆞ뇨 天子憂涼州嚴

程到須早 天子ㅣ 涼州를 시름ᄒᆞ실ᄉᆡ 길흘 嚴急히 ᄒᆞ야 가ᄆᆞᆯ 모로매 일ᄒᆞ놋다

去秋群胡反不得無電掃 謂吐蕃이 陷隴右也ㅣ라 ○ 니건 ᄀᆞᅀᆞᆯ 믈읫 되 反ᄒᆞ니 시러곰 번게 ᄡᅳ러ᄇᆞ리ᄃᆞᆺ호ᄆᆞᆯ 마디 몯ᄒᆞ리라

此行牧遺民風俗方再造 이 가매 가ᄂᆞᆫ 百姓을 牧養ᄒᆞ야 風俗올 뵈야ᄒᆞ로 다시 ᄆᆡᆼᄀᆞᆯ리로다

族父領元戎名聲閣中老 謂杜鴻漸이 爲朝廷耆舊而今節度河西也ㅣ라 ○ 族父ㅣ 元戎을 거느려시니 일훔과 소리왜 閣中에 늘곤도다

奪我同官良飄颻披城堡 甫ㅣ 爲拾遺ᄒᆞ니 與長孫侍御로 爲同官也ㅣ니 謂杜鴻漸이 奪長孫爲判官也ㅣ니라 ○ 우리 同官 어디닐 아사 飄颻

히城堡에按察케ᄒᆞ놋다 使我不能湌令我惡懷抱 날로ᄒᆡ여

能히밥먹디몯게ᄒᆞ며날로ᄒᆡ여ᄆᆞᄆᆞ미굿게ᄒᆞᄂᆞ다 若人才思闊溟

漲浸絶島 言才思之闊大ㅣ知滄溟之浚漲也ㅣ라 ○ 이ᄀᆞᆮᄒᆞᆫ사ᄅᆞᄆᆡ才思ㅣ

어위크니바ᄅᆞᆯ므리미러먼셔믈ᄌᆞᆷ맛노ᄃᆞᆺᄒᆞ도다 樽前失詩流塞上

得國寶 樽알ᄑᆡ셔글호ᄆᆞᆯ일커든邊塞人우희셔나랏珍寶ᄅᆞᆯ어드리로다

皇天悲送遠雲雨白浩浩 皇天이먼ᄃᆡ보내요ᄆᆞᆯ슬ᄒᆞ샤구루

멧비허여히뮈오놋다 東郊尚烽火朝野色枯槁西極

柱亦傾如何正穹昊 東郊애오히려烽火ㅣ며朝野애ᄉᆞᄂᆡ치시미우렛

고 西掖ㅅ 기동애 在기우햇ᄂᆞ니 엇뎨ᄒᆞ야 하ᄂᆞᆯ홀 고티려ᄂᆞ뇨

送樊二十三侍御赴漢中判官

威弧不能弦自玆無寧歲 易에 孤矢之利로 以威天下ㅣ라ᄒᆞ니 玄宗之末애 武備담弛ᄒᆞ니 是ᄂᆞᆫ 不能以孤矢로 威天下ᄒᆞ야 祿山이 乘隙而反也ㅣ라 ○므ᅌᅴ엿온 화ᄅᆞᆯ 能히 시울 엱디 몯ᄒᆞ니 이러호ᄆᆞ로브터 便安ᄒᆞᆫ ᄒᆡ 업도다

川谷血橫流豺狼沸相噬 豺狼은 喩盜賊이라 ○내과 묏고리 피 빗기 흐르고 豺狼이 븜피여 서르 너흐놋다

天子從北來長驅振凋敵 天子ㅣ 北으로브터 오샤 기리 모라 凋敝호ᄆᆞᆯ 니르와ᄃᆞ시ᄂᆞ다

頓兵

岐梁下却跨沙漠裔 沙漠은指漢中郡이라 謂肅宗이自靈武移兵

鳳翔而跨歷漢中諸郡也ㅣ라○岐梁아래 兵馬로머믈워셔사로沙漠ㅅᄀᆞ장건너

드되여겨시도다 二京陷未收四極我得制 二京은洛陽長

安이라四極은猶四方이라○두셔울흔뼈 뎌校復디몯ᄒ나四極은우리시러곰잡쥐

ᄂᆞ다 蕭索漢水淸緬通淮湖稅 言淮蔡荊湖ㅅ賦稅ᄅᆞᆯ漕運漢

水ᄒ야供軍需也ㅣ라○셔의京漢水ㅣ믈 ᄅ디淮湖ㅅ賦稅ㅣ아ᄋ라히ᄉ므차오노

다 使者紛星散王綱尚旒綴 紛星散은分遣使命于諸郡也

ㅣ라旒綴은言其危而欲絶也ㅣ라○使者 ㅣ어즈러이ᄲᅥ리ᄂᆞᆫ돗ᄒ고님금ㅅ綱紀ᄂᆞᆫ오

히려 旗ㅅ 발ᄃᆞ른 ᄃᆞᆺᄒᆞ도다

南伯從事賢君行立談際 南伯은 指漢中主將이오 從事ᄂᆞᆫ 指判官也ㅣ라 ○南伯의 從事ㅣ 어디니 그듸 셔셔 말ᄒᆞᄂᆞᆫ ᄆᆞᄋᆡ셔 나가ᄂᆞᆺ다

坐知七曜曆手畫三軍勢 日月五星이 爲七曜也ㅣ리 此ᄂᆞᆫ 美判官之明天文善兵法也ㅣ니리 ○안자셔 七曜曆을 알오 소ᄂᆞ로 三軍ㅅ 양ᄌᆞᄅᆞᆯ 긍어 뵈ᄂᆞᆺ다

氷雪淨聰明雷霆走精銳 氷雪이 조ᄒᆞᆫ ᄃᆞᆺᄒᆞᆫ 聰明이오 雷霆이 ᄃᆞᄂᆞᆫ ᄃᆞᆺᄒᆞᆫ 精銳로다

幕府輟諫官朝廷無此例至尊方旰食仗爾布嘉惠 幕府에 諫官을 그쳐 보내논 朝廷에 이 例 업건마ᄅᆞᆫ 至尊이 뵈야ᄒᆞ로 旰食ᄒᆞ실ᄉᆡ 너를 依仗ᄒᆞ야 아ᄅᆞᆷ다온

恩惠ᄅᆞᆯ펴리라ᄒᆞ시ᄂᆞ다 補闕暮徵入柱史晨征憇 御史ㅣ在
殿柱之問ᄒᆞᆯᄊᆡ謂之柱史ㅣ니라○補闕로나조ᄒᆡ블려드듸니柱史로새배녀가디가
쉬리로다 正當艱難時實藉長久計 正히艱難ᄒᆞᆫᄣᅢᄅᆞᆯ當ᄒᆞ야眞
實로긴고란혜아료ᄆᆞᆯ브틀디니라 回風吹獨樹白日照執袂
言別時之景이라○회로리ᄇᆞᄅᆞ미외로왼남ᄀᆞᆯ부ᄂᆞ니ᄇᆞᆯᄀᆞᆫᄒᆡ자ᄇᆞᆫᄉᆞ매예비취엿
도다 慟哭蒼烟根山門萬里閑 프른ᄂᆡ씬묏미티셔슬허우ᄂᆞ
니山門이萬里예다ᄃᆞᆺ도다 居人莽牢落遊子方迢遰 居人
은甫ㅣ라牢落ᄋᆞᆫ辛苦皃ㅣ라遊子ᄂᆞᆫ判官이라迢遰ᄂᆞᆫ遠也ㅣ라○사ᄂᆞᆫ사ᄅᆞᄆᆞᆫ가ᄋᆞ

라히涔落ᄒᆞ고노ᄂᆞᆫ子ᄂᆞᆫ뵈야ᄒᆞ로아ᄆᆞ라히가노다 徘徊悲生離局

促老一世 局促은不伸也ㅣ라○ᄂᆡ므러서사라여희요ᄆᆞᆯ슬코局促히一世

예ᄂᆞᆯ것노라 陶唐歌遺民後漢更列帝 季札이聞唐之歌曰

其有陶唐氏之遺民이로다此ᄂᆞᆫ言亂離之後에盛時舊俗이尙存也ㅣ라光武ㅣ承王

莽簒竊而遂建中興之業ᄒᆞ니肅宗이亦猶是ᄒᆞ니라○陶唐ㅅ기튼百姓을놀애브르

고後漢대여러帝ㅣᄀᆞ라셔겨시도다 恨無匡復資聊欲從此

逝 甫ㅣ自恨無輔君匡復之才ᄒᆞ야欲往山林也ㅣ라○고티며興復홀資質업수믈

슬노니일로브터나가고져ᄒᆞ노라

送從弟亞赴河西判官

南風作秋聲殺氣薄炎熾殺氣ᄂᆞᆫ寒氣也ㅣ라薄은如雷風相
薄之薄이라祿山之反애河北二京이皆陷于賊ᄒᆞ니陰陽은安得調和ㅣ리오此ᄂᆞᆫ言
天下之亂ᄒᆞ다○南녁ᄇᆞᄅᆞ미ᄀᆞᅀᆞᆳ소리ᄅᆞᆯ지ᅀᅳ니殺氣더위예다핫도다盛夏
鷹隼擊時危異人至上句ᄂᆞᆫ亦謂失時也ㅣ라○盛ᄒᆞᆫ녀르메매터
ᄂᆞᄂᆞ니時節이危亂ᄒᆞᆫ애奇異ᄒᆞᆫ사ᄅᆞ미오ᄂᆞ니라令弟草中來蒼然
請論事詔書引上殿奮舌動天意肅宗이往靈武ㅣ어
시ᄂᆞᆯ亞ㅣ上書論當世事ᄒᆞᆫ대擢校書郞ᄒᆞ다○어딘양이草萊人ᄉᆞᄀᆞ로셔오니蒼然

히마ᄅᆞᆯ 識論ᄒᆞ야 지라 請ᄒᆞ야ᄂᆞᆫ 詔書로 혀 發메 올ᄀᆡ시니 허ᄅᆞᆯ 다ᄅᆞ와 다하ᄂᆞᆫ ᄠᅳ들 感動케 ᄒᆞ도다

法五十家爾腹爲篋笥 兵法니른 紀지비네 비篋笥ㅣ 되엿도다

應對如轉丸踈通畧文字 言智謀ㅣ 傳達ᄒᆞ야 不泥於古書也ㅣ라 ○ 님금ᄭᅴ 應對ᄒᆞ미 두려운 것 그우리ᄃᆞᆺ ᄒᆞᄂᆞ니 踈通ᄒᆞ야 글월도 ᄇᆞ리놋다

經綸皆新語足以正神器 經綸홀 이리 다 새 마리로소니 足히 뻐 곰 神器ᄅᆞᆯ 고티리로다

宗廟尚爲灰君臣俱下淚 言九廟ㅣ 爲賊所焚也ㅣ라 ○ 宗廟ㅣ 오히려 ᄌᆡ ᄃᆞ외니 님금과 臣下ㅣ 다 ᄒᆞᆫ 므를 흘리놋다

崆峒地無軸青海天軒輕西極最瘡

瘴連山暗烽燧 崆峒山이在西北ᄒᆞ니言西北이陷於吐蕃이라青海亡
在東ᄒᆞ니言東方이如車之軒輊ᄒᆞ야不安定也ㅣ라○崆峒앤仲ᄒᆞ軸기업스여青海
엔하ᄂᆞᆯ히軒輊ᄒᆞ고西擾은안직험므으니니온되헤烽燧ㅣ어드뙷도다 帝曰
大帝衣繕卿佐元帥 帝ㅣ니ᄅᆞ샤되큰뵈옷니븐사ᄅᆞ마너를繕賴
ᄒᆞ야元帥롤듬계ᄒᆞᆫ노라 坐者清流沙所以子奉使 만자서流
沙ᄉᆞ녀킈몰고몰보리라뻐곰베奉使ᄒᆞ야가ᄂᆞ니라 歸當再前席適
遠非歷試 前席은用賈誼事ᄒᆞ니見前註ᄒᆞ다書序에舜ㅣ歷試諸難기라ᄒᆞ
다ᄉᆞ도라오면반ᄃᆞ기다시돗커나다가시리니면되가모디내갸뻑미아니가 須

存武威郡爲畫長久利모로매武威ㅅᄆᆞᄋᆞᆯᄒᆞᆯ安存ᄒᆞ야긴오란利호ᄆᆞᆯ爲ᄒᆞ야혜라孤峯石戴驛快馬金纏轡외로왼묏부리돌히엿ᄂᆞᆫ驛에ᄲᆞᄅᆞᆫᄆᆞᆯ게긔金이얼것ᄂᆞᆫ셕시로다黃羊飫不羶蘆酒多還醉黃羊은野獸ㅣ오蘆酒ᄂᆞᆫ糜穀으로醞成ᄒᆞᄂᆞ니述河西人所有也ㅣ라○黃羊ᄋᆞᆯ비브로머거도누리디아니ᄒᆞ고蘆酒ᄂᆞᆫ해머그면도로醉ᄒᆞᄂᆞ니라踴躍常人情慘憺苦士志言常情은以天子ㅅ擢遣으로必踴躍爲榮이오志士ᄂᆞᆫ顔色慘澹以爲憂ㅣ니라○즐겨踴躍호ᄆᆞᆫ常ㅅ사ᄅᆞ미ᄠᅳ디오슬허ᄒᆞ모苦로왼사ᄅᆞᄆᆡᄠᅳ디니라安邊敵何有反正計始遂올ㄱ

便安케ᄒᆞ면 敵人이 어느 이지리오 吾聞駕

正에 도라갈 혜유ㅣ 비릇이 놋다

鼓車不合用騏驥龍吟回其頭夾輔待所致

光武時예 興國이 獻名馬ㅣ어ᄂᆞᆯ 詔駕鼓車 ᄒᆞ니 比亞ㅣ 爲幕職ᄒᆞ다 末句ᄂᆞᆫ 言有待於

汝之終當致夾輔王室也ㅣ니라 ○ 나ᄂᆞᆫ 드로니 붑 시른 술위예 유멘 騏驥 ᄇᆞ리미 맛디 아

니ᄒᆞ니라 龍이 이피셔 머리ᄅᆞᆯ 도ᄅᆞ혀 보ᄂᆞ 니 夾輔ᄒᆞᆯ 네 모매 니르위요ᄆᆞᆯ 기들우노리

送韋十六評事充同谷防禦判官

昔沒賊中時潛與子同遊 謂祿山之亂이라 ○ 녜 盜賊ㅅ 가온 ᄃᆡ 빠뎌 실제 ᄀᆞ마니 그ᄃᆡ 와 다못ᄒᆞ야 ᄒᆞᆫᄃᆡ 노로라 今歸行在所王事

有去留 言甫ㅣ爲拾遺而留ᄒᆞ고韋爲判官而去也ㅣ라○이제行在所애도라와님금이레나가며머므로미잇도다 偪側兵馬間主憂急良籌 兵馬ㅅᄉᆞ이예어려이ᄃᆞᆫ니ᄂᆞ니님그미시름ᄒᆞ샤됴ᄒᆞᆫ籌策ᄋᆞᆯ섈리ᄒᆞ시ᄂᆞ다

子雖軀幹小老氣橫九州 그듸비록모미져그나ᄂᆞᆯ근氣運이九州에빗겻도다 挺身艱難際張目視寇讐 艱難ᄒᆞᆫᄉᆞ이예모몰ᄡᅢ혀나누ᄂᆞᆫᄠᅥ도ᄌᆞᄀᆞᆯ보ᄂᆞ다 朝廷壯其節奉詔令參謀 朝廷이그節介ᄅᆞᆯ健壯히너겨詔命을바다ᄒᆡ여곰幕府엣ᄭᅬᄅᆞᆯ參預케ᄒᆞ도다 鑾輿駐鳳翔同谷爲咽喉西扼弱水道南鎭枹罕

陬 枹罕은 縣名이라 ○ 鑾輿ㅣ 鳳翔애 머므르시니 同谷ㅅ ᄆᆞ올히 목ᄀᆞ티 ᄃᆞ외엿도다 西ㅅ녀크론 弱水ㅅ 길흘 눌렛고 南녀크론 枹罕ㅅ 모홀 鎭ᄒᆞ얏ᄂᆞ니라

此邦承平日剽刧吏所羞 剽ᄂᆞᆫ 強取也ㅣ라 ○ 이 ᄀᆞ올히 承平ᄒᆞᆫ 나래도 盜賊의 ᄆᆞ리 듀미 官吏의 붓그리논 배니라

況乃胡未滅控帶莽悠悠 此邦이 控引羌胡之地ᄒᆞ니라 悠悠ᄂᆞᆫ 遠也ㅣ라 ○ ᄒᆞᄆᆞᆯ며 되 배디 아니ᄒᆞ야시니 控帶ᄒᆞ야 쇼미 아ᄋᆞ라히 머도다

府中韋使君道足示懷柔

令姪才俊茂二美又何求 令姪은 指判官ᄒᆞ니 言使君與判官으로 叔姪 二人이 皆有義才也ㅣ라 ○ 府中엣 韋使君은 道理ㅣ 足히 懷柔호ᄆᆞᆯ 뵈어늘

어던아ᄎᆞ아ᄃᆞ리지죄後茂ᄒᆞ니돌히아돔답거니任므스글求ᄒᆞ리오 受詞太

白脚走馬侁池頭 太白山은在鳳翔ᄒᆞ고侁池ᄂᆞᆫ在同谷ᄒᆞ니言判官이受命太白山下而走馬向同谷也ㅣ라○太白山人바래셔ᄆᆞᆯᄉᆞ믈들ᄌᆞ와侁池ㅅ거리로ᄆᆞᄅᆞᆯ돌이놋다

古邑沙土裂積陰霜雪稠 此下ᄂᆞᆫ叙彼地風俗ᄒᆞ다ᄀᆞᆫ녯마올히沙土ㅣ벼혀고답사ᄒᆞᆫ陰氣예서리와눈패하도다

羌父豪猪靴羌兒青兒裘 되아비ᄂᆞᆫ굴근도티갓훼오되아ᄒᆡᄂᆞᆫ프른뫼쇠갓오시로다

吹角向月窟蒼山旌旆愁 月窟은指言西極ᄒᆞ다○吹角ᄒᆞ고月窟로向ᄒᆞᄂᆞ니프른뫼해旌旆시름ᄃᆞ외도다

烏驚出死

樹龍怒拔老湫 새놀라주근남긔셔ᄂᆞ라나고 龍이怒ᄒᆞ야오란모새셔싸혀나놋다 古來無人境今代橫戈矛 녜로오ᄆᆡ사ᄅᆞᆷ업슨ᄯᅡ히러니이代예戈矛ᄅᆞᆯ빗빗도다 傷哉文儒士憤激馳林丘 文儒士ᄂᆞᆫ指韋評事ᄒᆞ다○슬프다글ᄒᆞᄂᆞᆫ션비애와텨ᄆᆞᄋᆞᆷ니르와다林丘로ᄃᆞᆯ여가놋다 中原正格鬪後會何緣由 中原에셔正히사호ᄂᆞ니後에모도ᄆᆞᆺ어느말미리오 百年賦命定豈料沉與浮 百年에준命이一定ᄒᆞ얏ᄂᆞ니엇뎨ᄃᆞᄆᆞ며ᄠᅳ며호ᄆᆞᆯ혜리오 且復戀良友握手步道周 ᄯᅩ어딘버들思戀ᄒᆞ야소ᄂᆞᆯ자바셔긼구븨예건니노라 論兵遠

逕淨亦可縱冥搜 遠逕淨은言無寇盜之侵이라冥搜ᄂᆞᆫ搜尋冥幽之地而遊賞也ㅣ라○兵事ᄅᆞᆯ議論ᄒᆞ야먼묏고리조ᄎᆞ거든ᄯᅩ어루冥搜호ᄆᆞᆯ放縱히ᄒᆞ리로다

題詩得秀句札翰時相投 그를서됴ᄒᆞᆫ句ᄅᆞᆯ어더든글워ᄅᆞᆯ時로서르더뎌보내라

送高司直尋封閬州

丹雀銜書來暮棲何鄉樹驊騮事天子辛苦在道路 尚書中候에曰赤雀이銜丹書ᄒᆞ야止于昌前이라ᄒᆞ다驊騮ᄂᆞᆫ穆天子ㅅ八駿之一이라此ᄂᆞᆫ比司直의不遇瑞世之用而處非其位也ㅣ라○블근새글워를

므려와 나조히 어느 ᄆᆞᅀᆞᆷ ᄒᆞ시 ᄀᆞᆺ ᄒᆞ니오 驊

騮ㅣ 天子로 셤겨 辛苦로이 길헤 잇도다

司直非冗官荒山甚無趣 司直은 冗雜ᄒᆞᆫ 벼스리 아니언마ᄅᆞᆫ 거츤 뫼헤 甚히 興趣ㅣ 업도다 借問泛舟人胡爲入烟霧 묻노라 ᄇᆡ ᄠᅴ워 가ᄂᆞᆫ 사ᄅᆞᄆᆞᆫ 므스그라 烟霧로 드러가ᄂᆞ뇨

與子姻婭間旣親亦有故 그듸와 다ᄆᆞᆺ 姻婭ㅅ ᄉᆞ이니 ᄒᆞ마 아ᅀᆞ미며 ᄯᅩ 녜 사괴요미 잇ᄂᆞ니라

萬里長江邊邂逅一相遇 邂逅ᄂᆞᆫ 不期而會也ㅣ라 ○萬里ㅅ 긴 ᄀᆞᄅᆞᆷ ᄀᆞᅀᅵ 邂逅ᄒᆞ야 ᄒᆞᆫ 번 서르 맛보라

長卿消渴再公幹沉緜屢 甫ㅣ 以司馬相如劉公幹으로 自比ᄒᆞ다 ○長卿의 消渴ㅅ病이 다시 ᄒᆞᆫ ᄃᆞᆺ고

公幹의오란病 아ᄌᆞᆫᄃᆞᆺᄒᆞ리라 清談慰老夫開卷得佳句 ᄆᆞᆯᄀᆞᆫ
말로ᄂᆞᆯ근노ᄆᆞᆯ慰勞ᄒᆞᄂᆞ니書 卷을여러됴ᄒᆞᆫ句ᄅᆞᆯ어도라 時見文章士
欣然淡情素 이ᄢᅴ文章ᄒᆞᄂᆞᆫ사ᄅᆞᄆᆞᆯ보니 깃거ᄒᆞᄂᆞᆫ몬ᄅᆞᄠᅳ디고다 伏
枕閑別離疇能忍漂寓 벼가예곱스려셔여 희요ᄆᆞᆯᄃᆞ로나뉘能
히나그내로ᄇᆡ보ᄐᆡ ᄃᆞᆫ뇨ᄆᆞᆯᄎᆞᄆᆞ리오 良會苦短促溪行水奔
注 됴ᄒᆞᆫ모도미심히저ᄅᆞ고ᄲᆞᄅᆞ니시 내ᄒᆞ로므리두라브엣ᄂᆞᆫ티녀놋다 熊羆
咆空林游子慎馳騖 熊羆ㅣ뷘수프레셔우 ᄂᆞ니노니ᄂᆞᆫ그듸ᄂᆞᆫᄃᆞᆯ
여가ᄆᆞᆯ 삼가라 西謁巴中侯艱險如跬步 巴中侯ᄂᆞᆫ 卽封閬州

라○西人녀크로巴中에諸侯를뵈라가ᄂᆞ니艱險ᄒᆞᆫ길흘ᄲᅮᆫ거름ᄆᆞ티너기놋다主

人不世才先帝常特顧○主人은巴中侯ㅣ라主人은世예업ᄂᆞᆫ

ᄌᆡ죄ㅣ니先帝ㅣ댱샹特別히眷顧ᄒᆞ더시니라擢爲天軍佐崇大王

法度謂擢爲禁軍副將而持軍이整肅也ㅣ라○ᄲᅢ혀내야天軍을ᄃᆞᆯ게ᄒᆞ신대님

금法度ᄅᆞᆯ崇大ᄒᆞ니라淮海生淸風南翁尙思慕言閻州ㅣ

嘗官於淮海而南方父老思其德化也ㅣ라○淮海예ᄆᆞᆯᄀᆞᆫᄇᆞᄅᆞ미나ᄂᆞ니南녁늘근사

ᄅᆞᆷ이오히려思慕ᄒᆞ놋다公宮造廣廈木石乃無數初聞

伐松栢猶臥天一柱言肅宗이再造王室에宜擢任人才어늘閻州

ㅣ猶未見用也ㅣ라○公官에셔큰집지우
메나모돌히數ㅣ업스니처어솔와잣과베우
효물든다니오히려하
놉ᄒᆞᆫ기동이누엣도다
我病書不成成字讀
亦誤
내病ᄒᆞ야그롤일우디몯ᄒᆞ고
字롤일워도닐구매佐외도다
爲我問
故人勞心練征戍
故人은亦謂閻州ㅣ라○
나롤爲ᄒᆞ야故人더브러
무루ᄃᆡ모ᄋᆞ몰ᄀᆞ가征戍
호물練習ᄒᆞ놋다ᄒᆞ라

奉送魏六丈佑少府之交廣

賢豪贊經綸功成空名垂
賢豪ᄂᆞᆫ指魏徵ᄒᆞ
다○賢豪ㅣ經綸
을도오니功이일오ᄃᆡᄒᆞᆫ
갓일후미드려오놋다
子孫不振耀歷代

皆有之子孫이니르와다빗나더아내호ᄃᆡ歷代예다잇도다鄭公四
葉孫長大常苦飢魏徵이封鄭公ᄒᆞ니라四葉孫은指佑ᄒᆞ다○鄭公
의四代옛孫子ㅣ여킈크고長常심히주으렛도다衆中見毛骨猶是
麒麟兒모ᄃᆞᆫ中에毛骨을보니오히려이麒麟의삿기로다磊落貞觀
事致君樸直詞磊落은高大皃ㅣ라魏徵이在貞觀ᄒᆞ야多所直諫ᄒᆞ니
라○磊落ᄒᆞᆫ貞觀젓이리로소니님그믈닐위요ᄃᆡ質樸正直ᄒᆞᆫ말ᄉᆞᄆᆞ로ᄒᆞ니라家
聲蓋六合行色何其微行色은指佑의老叟寠이라○긼소리六
合애두퍼쇼ᄃᆡ녀가ᄂᆞᆫ비치ᄀᆞᄂᆞ모殘微ᄒᆞ도다遇我蒼梧陰忽驚會

面稀 蒼梧ᄂᆞᆫ在零陵ᄒᆞ다○ᄂᆞᄎᆞᆯ蒼梧人ᄆᆞᅀᆞᆯ해맛나니忽然히ᄂᆞᆺ바조노마드므로믈놀라ᄒᆞ노라 議論有餘地公侯來未遲 言估ㅣ終必爲卿相也ㅣ라○議論이나ᄆᆞᆫᄯᅡ히잇ᄂᆞ니公侯ㅅ벼스리오미더듸디아니ᄒᆞ리로다 虛思黃金貴自笑靑雲期 言不貪黃金之貴而自笑其官卑也ㅣ라○黃金의貴호ᄆᆞᆯ虛히ᄉᆞ랑ᄒᆞ며靑雲ㅅ期望호ᄆᆞᆯ제웃ᄂᆞ다 長卿久病渴 武帝元同時 相如ㅣ雖遇武帝而官未顯ᄒᆞ니喻估之不遇ᄒᆞ다○長卿이消渴ㅅ病호미오라니武帝와본ᄃᆡᄒᆞᆫᄢᅴ니라 季子黑貂弊得無妻嫂欺 蘇秦이說秦王不遇而貂裘ㅣ弊ᄒᆞ고歸家而妻不下機ᄒᆞ며嫂不爲炊ᄒᆞ니

比㑭之困窮ᄒᆞ니라○季子의거믄貂裘ㅣ허니시러곰겨집파랑이겨지비歎美이업
스려 尙爲諸侯客 獨屈州縣卑 오히려諸侯의소니ᄃᆞ외야ᄒᆞ
올로州縣이ᄂᆞᆺ가온ᄃᆡ구버ᄃᆞᆫ니ᄂᆞᆺ다 南遊炎海甸 浩蕩從此
辭 浩蕩은遠皃ㅣ라○南녀크로더운바ᄅᆞᆯ郊甸에놀라가ᄂᆞ니훤히일로브터여희
ᄂᆞᆺ다 窮途仗神道 世亂輕土宜 言舟行之險에神必相之也ㅣ
라輕土宜ᄂᆞᆫ去故鄕이라○窮困ᄒᆞᆫ길헤神道ᄅᆞᆯ依仗ᄒᆞ고世亂애土宜ᄅᆞᆯ가비야이너
기ᄂᆞᆺ다 辭帆歲云暮 可與春風歸 言㑭至交廣이當及早春
ᄒᆞᆫㅣ라○빗돗ᄀᆞᆯ어가매歲月이졈그ᄂᆞ니어루春風과다못가리로다 出入李

門家華屋刻蛟螭此下ᄂᆞᆫ言交廣繁富也ㅣ라○블근칠ᄒᆞᆫ門ㅅ지븨

도ᄃᆞᆯ리ᄂᆡ빗난지비蛟龍ᄋᆞᆯ사겻도다玉食亞王者樂張遊子

悲玉ᄀᆞᆮᄒᆞᆫ밥머구미님금셔버그니音樂ᄋᆞᆯ펴면遊子ㅣ슬프리라侍婢豔

傾城綃綺輕霧霏綃綺ᄂᆞᆫ言衣服ᄒᆞ다○뫼셴ᄂᆞᆫ겨집죵ᄋᆞ고와城을

기우리허리로노니깁오ᄉᆞᆫ가비야ᄋᆞᆫ雲霧ㅣ霏霏ᄒᆞᆫ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掌中琥珀

盃行酒雙逶迤逶迤ᄂᆞᆫ匝皃ㅣ라○掌中엣琥珀잔ᄋᆞ로行酒ᄒᆞᄂᆞᆫ雙雙

기횟도로ᄒᆞ리로다新歡繼明燭梁棟星辰飛言新歡을繼夜

而達曙也ㅣ라○새歡樂ᄒᆞ매블근燭ㅅ브를니오니집ᄆᆞᆯ리벼리ᄂᆞ라새리로다兩

情顧眄合珠碧贈於斯 碧은瓐玉也ㅣ라顧眄오아니한더든나
ᄅᆞ니라○둘희ᄠᅳ디도라볼ᄉᆞ이예마ᄌᆞ리니珠碧을이제ᄌᆞ리로다 上貴見
肝膽下貴不相疑 言貴相知心而無所疑忌也ㅣ니라○우ᄒᆞ론ᄆᆞᄋᆞ
몰보미貴ᄒᆞ고아래론서르疑心티아니호미貴ᄒᆞ니라 心事披寫間氣
酣達所爲 披寫ᄂᆞᆫᄆᆞᄋᆞ몰펴내여뵐시라○ᄆᆞᄋᆞ몰披寫ᄒᆞᄂᆞᆫᄉᆞ이예氣運이
ᄒᆞ늘ᄒᆞ야ᄒᆞᄂᆞᆫ이를通達히ᄒᆞ리로다 錯揮鐵如意莫避珊瑚
枝 王愷ㅣ示珊瑚石崇ᄒᆞᆫ대崇이以鐵如意로擊碎ᄒᆞ니言雖珊瑚之寶ㅣ라도當不
貪愛니라○쇠如意롤그르두루惜메珊瑚ㅅ가지롤避ᄒᆞ디말라 始兼逸邁

興終愼賓主儀처어믄放逸히가ᄂᆞᆫ興을兼ᄒᆞᄂᆞ니ᄆᆞᄎᆞ맨賓主의禮儀를삼갈디니라戎馬闇天宇嗚呼生別離사호맷ᄆᆞ리天下애어드웟ᄂᆞ니슬프다사라셔여희요미여

別張十三建封ᄒᆞ노라 湖南觀察使韋之晉이辟叅謀ᄒᆞ니라

甞讀唐實録國家草昧初裵劉首建議龍見尙躊躇草ᄂᆞᆫ雜亂이오昧ᄂᆞᆫ晦冥이니言天下ㅣ未定名分이未明也ㅣ라裵寂劉文靜이首建議ᄒᆞ야勸高祖起兵ᄒᆞ니라○일즉唐人實録을닐고니나랏草昧ᄒᆞᆫ처

어믜褎劉ㅣ서엄議論을셰니龍의나다나미오히려머므렛더라 秦王撥亂

姿一劍揔兵符 秦王은亂을싸혀ᄇᆞ리시ᄂᆞᆫ姿質이시니ᄒᆞᆫ갈가지고兵符롤揔領ᄒᆞ시니라 汾晋爲豊沛暴隋竟滌除 汾晋은高祖ㅅ故鄕이니以比漢高之起豊沛ᄒᆞ다○汾晋ᄋᆞ로豊沛롤사므니모딘隋롤모ᄎᆞ매시서ᄇᆞ리시니라 宗臣則廟食後祀何踈蕪 言子孫이不顯達而廟祀ㅣ幾廢也ㅣ라○큰臣下ᄂᆞᆫ廟지어享食ᄒᆞᆯ디어늘後엣祭祀ㅣ엇뎨드믈며거츠뇨 彭城英雄種宜膺將相啚 劉文靜은彭城人이라○彭城은英雄엣種類ㅣ니將相ㅅ씌롤膺當호미맛당ᄒᆞ니라 爾惟外曾孫倜

儻汗血駒爾ᄂᆞᆫ指建封ᄒᆞ니其不羈之才ㅣ如汗血馬也ㅣ라○너ᄂᆞᆫ外曾孫ㅣ이니ᄀᆞ즉ᄀᆞ즉ᄒᆞ야피ᄯᆞᆷ내ᄂᆞᆫᄆᆞᆯ삿기ᄀᆞᆮ도다眼中萬少年用意盡

崎嶇言少年이雖衆이나無若建封者ㅣ니라○누비뵈ᄂᆞᆫ한나져믄사ᄅᆞᆷ은ᄠᅳ들ᄡᅳ미다崎嶇ᄒᆞ도다相逢長沙亭乍問緒業餘乃吾故

人子童丱聯居諸緒業은家世緒業也ㅣ니詩예總角丱兮라ᄒᆞ고又日居月諸라ᄒᆞ다聯居諸ᄂᆞᆫ言相聯袂於日月也ㅣ라○長沙人亭子애서르맛보아잠간緒業기터오ᄆᆞᆯ무로니내버티아ᄃᆞ리로소니저머머리ᄆᆡ야실제居諸예니어이쇼라

揮手灑衰淚仰着八尺舡소ᄂᆞᆯ휫들어늘근눈므를ᄲᅳ리고여

듧잣모ᄅᆞᆯ 위러보노라

內外名家流風神蕩江湖

안과밧패 일홈난집무리로소니風神이江湖ㅅ서리예流蕩ᄒᆞ야ᄃᆞ니놋다

范雲堪結友嵇紹不自孤

梁人范雲이與王駿로善ᄒᆞ더니駿死ㅣ어ᄂᆞᆯ雲이迎賓其家ᄒᆞ니라嵇康이與山濤로相交ᄒᆞ더니康이臨誅ᄒᆞ야謂子紹曰山公이在ᄒᆞ니汝不孤矣리라ᄒᆞ니此ᄂᆞᆫ甫ㅣ得交建封ᄒᆞ고又囑其子也ㅣ라○范雲은버디라ᄒᆞ야相結ᄒᆞᆫ얌직ᄒᆞ며嵇紹ㅣᄉᆞ싀로외롭디아니ᄒᆞ리로다

擇材征南幕湖落回鯨魚

謂之晋在湖南而辟建封也ㅣ라○征南幕애셔材를ᄀᆞᆯᄒᆡᄂᆞ니ᄆᆞᄅᆞᆷ므리ᄢᅦ어늘고래도라가ᄃᆞᆺᄒᆞ놋다

載感賈生慟復閑樂毅書

此ᄂᆞᆫ 皆言時事ᄒᆞ니 賈生慟은 言當時之危亂也ㅣ라 燕王이 疑樂毅어늘 毅ㅣ畏誅而降趙커늘 燕王이 遺書謝之ᄒᆞᆫ대 毅亦報書ᄒᆞ니 此ᄂᆞᆫ 言帝積疑諸將而不推誠任之也ㅣ라 ○ 賈生의 슬후블비 感動ᄒᆞ며 任樂毅ㅣ 글워를 듣노라

主憂惡盜賊師老荒京都 言帝方以盜賊으로 爲惡憂而師久無功也ㅣ라 ○ 님그미 시름ᄒᆞ샤 盜賊을 惡히 너기거신마론 軍師ㅣ 늘거 京都ㅣ 거츠렛도다

舊丘復稅駕大廈傾宜扶 勉建封이 勿止息舊丘而必往也ㅣ라 ○ 녯 사던 ᄃᆡ 가 ᄯᅩ 멍에를 벗겨 쉬리로소니 큰 지비 기울어든 더위자보미 맛당ᄒᆞ니라

君臣各有分管葛本時須 比建封於管仲孔明ᄒᆞ다 ○ 님금과 臣下왜 제여곰

定分이잇ᄂᆞ니管葛요本來時節에셔須求ᄒᆞᄂᆞ니라 雖當霜雪嚴未覺栝栢枯 言建封이有歲寒之節也ㅣ라○비록서리와눈패치우믈當ᄒᆞ나栝栢이이구루믈아디몯ᄒᆞ리로다 高義在雲臺嘶鳴望天衢 上句ㄴ言立功業也ㅣ라下ㄴ以駿馬之致遠으로比之ᄒᆞ다○노ᄑᆞᆫ義ㄴ雲臺예그리이고져호매잇ᄂᆞ니우러셔하ᄂᆞᆳ길흘ᄇᆞ라놋다 羽人掃碧海功業竟何如 羽人은神仙也ㅣ라言當此之際ᄒᆞ야建功業이如羽ㅅ人之掃碧海라難爲功也ㅣ라○짓옷니븐사ᄅᆞ미프른바ᄅᆞ래셔ᄡᅳᄂᆞ니功業은ᄆᆞᄎᆞ매엇더ᄒᆞᆯ고

別唐十五誡因寄禮部賈侍郎至

九載一相逢百年能幾何아홉ᄒᆡ예ᄒᆞᆫ번서르마조보니百年
은能히언마만ᄒᆞ니오復為萬里別送子山之阿任萬里옛
여희요ᄆᆞᆯᄒᆞ야그듸ᄅᆞᆯ묏ᄢᅳ메셔보내노다白鶴久同林潛魚本
同河此ᄂᆞᆫ喻與誠로為故舊也ㅣ라○힌鶴요수프레오래ᄒᆞᆫᄃᆡ이시며ᄌᆞᆷ맛ᄂᆞᆫ고
기ᄂᆞᆫᄀᆞᄅᆞ매本來ᄒᆞᆫᄃᆡ잇ᄂᆞ니라未知棲集期衰老强高歌
깃기어모다숤期約을아디몯ᄒᆞᆯ시늘구메고ᄃᆞᆯ파노ᄑᆡ놀애브르노라歌罷兩
悽惻六龍忽蹉跎六龍ᄋᆞᆫ日御ㅣ라蹉跎ᄂᆞᆫ猶遲暮也ㅣ니라○놀애
ᄆᆞᆺ고둘히슬허ᄒᆞ니여슷龍이믄드시蹉跎ᄒᆞ도다相視鬢皓白況難

佳羲和謂日月逝矣라歲不我與也ㅣ라○서르본흰머리허여ᄒᆞ니ᄒᆞ믈며나
ᄃᆞ롤머믈오미어려오미ᄯᆞ녀胡星墜燕地漢將仍橫戈胡星
은旄頭ㅣ니踰安史之賊ᄒᆞ다○되벼리燕ㅅᄯᅡ해디니漢人將軍이지즈로干戈ᄅᆞᆯ빗
겨도다蕭條四海內人少豺虎多蕭條ᄒᆞᆫ四海ㅅ안해사ᄅᆞ
ᄆᆞᆫ젹고豺虎ㅣ하도다少人慎莫投多虎信所過사ᄅᆞᆷ저근
ᄃᆡ란삼가가디말옥범한ᄃᆡᄂᆞᆫ眞實로디나갈배니라飢有易子食獸
猶畏虞羅此ᄂᆞᆫ言世亂애人惡이甚於豺虎也ㅣ니라○주으려ᄂᆞᆫ아ᄃᆞᄅᆞᆯ서
르밧과머구미잇고즁셩도오히려虞人의그므를젼ᄂᆞ니라子負經濟才

天門[illegible]嵯峩言天門이高遠ᄒᆞ야君王이不知其才也ㅣ라○그듸나라다ᄉᆞ릴지조를젓건마ᄅᆞᆫ하ᄂᆞᆳ門이[illegible]然히놉도다飄颻適東周來往若崩波飄颻히東周로가ᄂᆞ니오며가미ᄫᅳᆫ결믈어디돗ᄒᆞ도다南宮吾故人白馬金盤陀南宮은禮部ㅣ라昔에賈逵ㅣ爲禮部侍郎ᄒᆞ야嘗乘白馬故로比賈至ᄒᆞ다金盤陀ᄂᆞᆫ言鞍上餙也ㅣ라○南宮은네버디니힌몰거긔金이얼것도다雄筆映千古見賢心靡他言好賢之心이出於誠一也ㅣ라○雄壯ᄒᆞᆫ부뎃千古애비취엿ᄂᆞ니어딘사ᄅᆞᆷ보고ᄆᆞᅀᆞ미다ᄅᆞᆫ듸가디아니ᄒᆞᄂᆞ니라念子善師事歲寒守舊柯勉唐誠의盡心事賈

公ᄒᆞ야如松柏의歲寒不凋而無變易也ㅣ니라○念ᄒᆞᆫᄃᆞᆫ그듸ᄂᆞᆫ이대스승ᄋᆞ로셤겨ᄒᆡᆺ치위예녯가지ᄅᆞᆯ堅守ᄒᆞ야시라

爲吾謝賈公病肺卧江沱

나ᄅᆞᆯ為ᄒᆞ야賈公ᄃᆡ려致謝ᄒᆞ라肺病ᄒᆞ야江沱애누엇더라ᄒᆞ라

送韋諷上閬州錄事參軍

上ᄋᆞᆫ上官也ㅣ라

國步猶艱難兵革未衰息

國步ᄂᆞᆫ猶國運이라○國步ㅣ오히려가빈ᄒᆞ니사호미긋디아니ᄒᆞ얏도다

萬方哀嗷嗷十載供軍食

萬方이ᄂᆞᆯ허ᄒᆞ야우ᄂᆞ니열ᄒᆡᄅᆞᆯ軍食을供給ᄒᆞ놋다

庾官務割剝不暇憂反側

官吏ㅣ務供軍食ᄒᆞ야唯事割剝於民이오不暇念下民의反

側不安也ㅣ라○여러마ᄋᆞ리百姓의것버혀아오ᄆᆞᆯ힘뻐ᄒᆞ야反側ᄒᆞᆯ가시름ᄒᆞᆯ餘暇ㅣ업도다

誅求何多門賢者貴爲德 誅求ᄂᆞᆫ言取斂也ㅣ라多門은取斂이非一端이라此ᄂᆞᆫ期望韋之以德恤下也ㅣ라○誅求ᄒᆞ요미ᄌᆞ모門이하니어딘사ᄅᆞᄆᆞᆫ德을호미貴ᄒᆞ니라

韋生富春秋洞徹有清識 富春秋ᄂᆞᆫ言年少ᄒᆞ니財寶애가ᄌᆞᆯ비건댄기터잇ᄂᆞᆫ거시가ᄋᆞ멸시라○韋生이나히져므니ᄆᆞᄋᆞ미ᄉᆞᄆᆞᆺ차ᄆᆞᆯ곤아로미잇도다

操持紀綱地喜見朱絲直 紀綱ᄋᆞᆯ자밧ᄂᆞᆫᄯᅡ해블근시리고ᄃᆞᆫᄃᆞᆺ호ᄆᆞᆯ깃거보노라

當今豪奪吏自此無顏色 言豪奪吏ㅣ沮喪氣色ᄒᆞ야不敢逞也ㅣ라○반ᄃᆞ

기모딜오앗ᄂᆞᆫ吏로ᄒᆡ여일로보터ᄂᆞᆺ비치업게ᄒᆞ리로다

必若救瘡痍

先應去蟊賊 蟊賊ᄂᆞᆫ害禾稼之虫故로比害民之吏ᄒᆞ다○반ᄃᆞ기萬一헐므우믈救恤ᄒᆞᆯ뎬몬져당당이蟊賊을업게ᄒᆞᆯ디니라

揮淚臨大江 高天意悽惻 謂傷別也ㅣ라○눉믈솟고큰ᄀᆞᄅᆞᆷ디러슈니노폰하ᄂᆞᆯ해ᄡᅳ디슬프도다

行行樹佳政 慰我深相憶 녀여ᄃᆡ가됴ᄒᆞᆫ政治ᄅᆞᆯ세여내기피서르ᄉᆞ랑호ᄆᆞᆯ慰勞ᄒᆞ라

送率府程錄事還鄉 甫ㅣ自註程이携酒饌ᄒᆞ야相就取別ᄒᆞ다

鄙夫行衰謝抱病昏妄集 鄙夫는甫ㅣ自謂라○더러운노미 將次人늘구메病을아나셔昏妄호미몯ᄂᆞ다 常時往還人記一不識十 常時예가며오며ᄒᆞᄂᆞᆫ사ᄅᆞᆷ몰ᄒᆞ나만記錄ᄒᆞ고열흘아디몯ᄒᆞ노라

程侯晩相遇與語才傑立 程侯ᄅᆞᆯ늘거셔ᄉᆞ마조보아다ᄆᆞᆺ말ᄒᆞ니저죄傑立ᄒᆞ도다

薰然耳目開頗覺聰明入 謂與程侯로相話ᄒᆞ니薰然若耳目이頓開也ㅣ라○薰然ᄒᆞ야귀와눈매연ᄃᆞᆺᄒᆞ니ᄌᆞ모聰明이드로몰아노라

千載得鮑叔末契有所及 言甫ㅣ得程侯ᄒᆞ니如管仲의交鮑叔也ㅣ라契ᄂᆞᆫ交契也ㅣ라○千載예鮑叔을어두니그테사괴요매미촌배

잇노라

意鍾老栢青義動脩蛇蟄 鍾은聚也ㅣ니言程侯之意ᄂᆞᆫ如松栢의歲寒애不改其操ㅣ며其辭官之義ᄂᆞᆫ如龍蛇의蟄藏其身也ㅣ라○ᄠᅳ든늘근잣남ᄀᆡ퍼러호미모ᄃᆞᆺ고義ᄂᆞᆫ긴비야미蟄藏호미뮈엿도다

若人可數見慰我垂白泣 이런사ᄅᆞ믈可히ᄌᆞ조보암직ᄒᆞ니내센머리드리우고우로몰慰勞ᄒᆞᄂᆞ다

告別無淹晷百憂復相襲 無淹晷ᄂᆞᆫ謂無晷刻淹留而卽告別也ㅣ라○여ᄎᆡ요몰날오미머믈時刻이업스니온가짓시르미또서르ᄠᅡ려오ᄂᆞ다

內愧突不黔虗羞以賙給 竈突이不黔黑은言其貧甚ᄒᆞ야不得炊爨也ㅣ라○안ᄒᆞ로븟그료ᄃᆡ보역곰기ᄇᆡ디몯ᄒᆞᆫ나ᄅᆞᆯ여러

자반ᄋᆞ로 ᄡᅧᄎᆞᄂᆞ다 素絲挈長魚碧酒隨玉粒 此ᄂᆞᆫ言携酒饌之事ᄒᆞ다○ 흰실로 긴고기를 ᄆᆡ야잡고프른수리 玉ᄀᆞᄐᆞᆫ ᄇᆞᆸ래조찻도다 途窮

見交態世梗悲路澁 途窮ᄋᆞᆫ 甫ㅣ自言其未達ᄒᆞ니라 下句ᄂᆞᆫ言世亂而行路ㅣ險澁不通也ㅣ라○ 길히窮盡ᄒᆞᆫᄃᆡ 사괴ᄂᆞᆫ 양ᄌᆞᄅᆞᆯ 보노니 時世ㅣ 어즈러운제 길히 險澁ᄒᆞ믈 슬노라

東風吹春氷泱莽后土濕 泱莽ᄋᆞᆫ 廣大貌ㅣ라 此ᄂᆞᆫ 記別時ᄒᆞ다○ 東녁ᄇᆞᄅᆞ미 봆어르믈 부ᄂᆞ니 어위키 后土ㅣ 저젓다

念君惜羽翮既飽更思戢莫作翻雲鶻聞呼向禽急 此ᄂᆞᆫ 戒程候의 自愼重而勿爲趍利니라○ ᄉᆞ랑ᄒᆞᆫᄃᆡ 그듸ᄂᆞᆫ 개

롤앗겨ᄒᆞ마비브르거든ᄯᅩ가도혀몰ᄉᆞ랑ᄒᆞ야구루메두위잇ᄂᆞᆫ매ᄃᆞ외야브르ᄂᆞᆫ조리도ᄅᆞ고즘숭向ᄒᆞ욤ᄀᆞᆯ리호ᄆᆞᆯ말라

送孔巢父謝病歸遊江東兼呈李白

巢父掉頭不肯住東將入海隨烟霧 巢父ㅣ머리ᄒᆞ눌오머므러이슈믈즐기디아니ᄒᆞ야東녀크로將次ᄉᆞ바ᄅᆞ래드러가烟霧를조초리라ᄒᆞ놋다

詩卷長留天地間釣竿欲拂珊瑚樹 珊瑚樹ㅣ生海中石上故로承上入海而言ᄒᆞ니라○지온詩卷은기리天地ᄉᆞᅀᆞ이예머므렷거든낛대로珊瑚남ᄀᆡ다잇고져ᄒᆞ놋다

深山大澤龍蛇遠春

寒野陰風景暮上句ᄂᆞᆫ言巢父之歸ᄒᆞ고下句ᄂᆞᆫ記別時之景ᄒᆞ다○기
픈뫼콰큰모새龍과비얌괘머리나ㅏᄂᆞ니보미서늘ᄒᆞ여ᄆᆡ히어드운風景ㅅ나조히
로다

蓬萊織女回雲車指點虛無引歸路蓬萊山애
織女ㅣ구룸술위를돌아虛無ᄒᆞᆫᄃᆡ를ᄀᆞᄅᆞ쳐갈길흘혀가리로다

自是君身有仙骨世人那得知其故言以有仙骨故로
將歸隱而世人이不知其故也ㅣ라○스ᄉᆡ로이그ᄃᆡᆺ모매仙
骨이잇ᄂᆞ니世間앳사ᄅᆞᄆᆞᆫ어느시러곰그
런젼ᄎᆞ를알리오

惜君只欲苦死留富貴何如草頭
露言巢父ㅣ輕視富貴호ᄃᆡ如草露之不久
ᄒᆞ야不肯留也ㅣ라○그ᄃᆡ를앗겨오직

심히주글ᄉᆡ니언뎡머믈오고져칸마ᄅᆞᆫ宮
貴호ᄆᆞᆯ픐그텟이슬와엇더ᄒᆞ니오너기놋
다 **蔡侯靜者意有餘清夜置酒臨前除** 除ᄂᆞᆫ階除
也ㅣ라言蔡侯ㅣ性自恬靜而厚意有餘ᄒᆞ
야置酒話別也ㅣㅣ라○蔡侯ᄂᆞᆫᄆᆞᄋᆞ미安靜
ᄒᆞ야ᄡᅳ디有餘ᄒᆞ니믈ᄀᆞᆫ바ᄆᆡ
수를노코압階除를디렛도다 **罷琴惆悵月**
照席幾歲寄我空中書 空中書ᄂᆞᆫ鴈足書ㅣ니謂寄音信也ㅣ라
○거믄고몯고슬호매ᄃᆞ리돗긔비취엿ᄂᆞ
니어느ᄒᆡ예아내게空中엣글워를브터보
벌다 **南尋禹穴見李白道甫問訊今何如** 禹ㅣ巡狩
至會稽而崩이어늘因葬焉ᄒᆞ니上有孔穴
ᄒᆞ니라○南녀크로禹穴을ᄎᆞ자李白을보

아ᄃᆞᆫ 내 音信을 무로ᄃᆡ 이제 엇더ᄒᆞ고 ᄒᆞ더라 니ᄅᆞ라

贈李十五丈別

峽人鳥獸居其室附層巓 言民居ㅣ如鳥獸之巢穴也ㅣ니○峽中엣 사ᄅᆞ미 새 ᄌᆞᆼ싱ᄀᆞ티 사ᄂᆞ니 그지비 층층인 묏부리예 븓텃도다

下臨不測江中有萬里船 아래론 기픈 ᄀᆞᄅᆞᄆᆞᆯ 디렷고 가온ᄃᆡᄂᆞᆫ 萬里옛 ᄇᆡ 잇노다

多病紛倚薄少留改歲年 한 病에 어즈러이 브터 잇노니 저기 머므로매 ᄒᆡ 改變ᄒᆞᄂᆞ다

絶域誰慰懷開顏喜名賢 謂喜得李丈也ㅣ라○먼 ᄀᆞᄋᆡ셔 뉘 내 ᄆᆞᄋᆞᄆᆞᆯ 慰勞ᄒᆞ리오 ᄂᆞᄎᆞᆯ 여러 일훔난 어딘 너를 깃거

ᄒᆞ노라 孤陋忝末親等級敢比肩 言貧賤ᄒᆞ야不敢比肩李
夫也ㅣ라○외롭고더러워그텟아ᄋᆞ물더레요니벼슰等級은敢히엇게ᄅᆞᆯ글오리아
人生意氣合相與襟袂連 人生애ᄠᅳᆮ과氣運이마자서르다ᄆᆺ
ᄀᆞ야襟袂ᄅᆞᆯ니어안조라 一日兩遣僕三日一共筵 ᄒᆞᄅᆞᆺ나래
두번죵브리고사ᄋᆞ래ᄒᆞᆫ번돗글다ᄆᆺ호라 揚論展寸心壯筆過
飛泉 펴議論ᄒᆞ야方寸ᄆᆞᅀᆞᆷ펴ᄂᆞ니健壯ᄒᆞᆫ부드ᄂᆞᆫ므리라와넘도다 玄
成義價存子山舊業傳 子山ᄋᆞᆫ庾信의字ㅣ라以韋玄成庾信으
로比李丈也ㅣ라○玄成의됴ᄒᆞᆫ비디잇ᄂᆞᆫᄃᆞᆺ고子山이녯業을傳ᄒᆞᆫᄃᆞᆺᄒᆞ도다 不

聞八尺軀常受衆目憐 여듧 잣 모미 長常 모ᄃᆞᆫ 누ᄂᆡ ᄉᆞ랑ᄋᆞᆯ 어두ᄆᆞᆯ 듣디 몯ᄒᆞ리로다 且爲辛苦行蓋被生事牽 辛苦ᄅᆞ왼 ᄃᆡ 가ᄆᆞᆯ ᄒᆞᄂᆞ니 사ᄅᆞ미 릐 잇구믈 니베로다 北回白帝棹南入黔陽天 北녀긔셔 白帝城엣 ᄇᆡᄎᆞᆯ 돌아 南녀크로 黔陽ㅅ ᄀᆞᇫ 하ᄂᆞᆯ로 드러가ᄂᆞ다 汧公制方隅迥出諸侯先 汧國公李勉이 時爲江西觀察使ㅣ러니 李丈이 從謂也ㅣ라 此下로 至黃頭ᄭᅴ은 皆羨汧公也ㅣ니라 ○汧公이 方隅ᄅᆞᆯ 잡쥐ᄂᆞ니 諸侯의 알ᄑᆡ 아ᄋᆞ라히 나도다 封內如太古時危獨蕭然 封疆안히 太古ㅅ 적 ᄀᆞᄐᆞ니 時節 바ᄃᆞ라온 제 ᄒᆞ올로 蕭然ᄒᆞ도다 清高金莖

露正直朱絲絃 金莖은承露盤之銅柱ㅣ오朱絲絃은淸廟瑟也ㅣ라○

몱고노포몬金莖앳이스리오正直호몬블근실시울곤도다 昔在堯四岳

今之黃潁川 黃霸ㅣ爲潁川守ᄒᆞ야有善政ᄒᆞ니라○녜잇던堯人四岳이

오이젯黃潁川이로다 于邁恨不同所思無由宣 言不得同

謂浙公故로所懷ᄅᆞᆯ難宣也ㅣ라○녀가매同티몯호ᄆᆞᆯ슬ᄂᆞ니ᄉᆞ랑ᄒᆞᄂᆞᆫ바ᄅᆞᆯ베퍼말

미업도다 山深水增波解榻秋露懸 謂浙公이禮遇李丈을如

陳蕃之解榻ᄒᆞ야待徐穉也ㅣ라○뫼히깁고므레믈겨리더으ᄂᆞ니坐榻을ᄀᆞ을힛나

게ᄃᆞ랏ᄂᆞ닐그르리로다 客遊雖云久亦思月再圓ㅣ 言甫爲

客이 旣久ᄒᆞ야 欲辭主人을 更待月圓時也ㅣ니라○나ᄂᆞᆫ 그 버노로미 비록 ᄂᆞᆯ오되 오라 나ᄯᅩ ᄃᆞ리 나시 두려올 저글 ᄉᆞ랑ᄒᆞ노라

晨集風諸亭醉操雲嶠篇 徐陵이 醉中에 作白雲이 出諸嶠篇ᄒᆞ니라○아ᄎᆞ미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믌ᄀᆞᆺ 亭子애 모다 서 醉코 雲嶠篇ᄋᆞᆯ ᄐᆞᆫ 그를 자밧노라

丈夫貴知己歡罷念歸旋 謂惜別而欲李丈之速還也ㅣ라○丈夫ᄂᆞᆫ 몸 알리ᄅᆞᆯ 貴히 너기ᄂᆞ니 歡樂ᄋᆞᆯ ᄆᆞᆺ고셔 ᄃᆞ라오ᄆᆞᆯ 思念ᄒᆞ노라

贈別賀蘭銛

黃雀飽野粟羣飛動荊榛 黃雀은 物之微者ㅣ니 比小人이 得

志者ᄒᆞ다○누른새미햇조ᄒᆞᆯ비브
르먹고모다ᄂᆞ라荊榛ᄋᆞᆯ뒤오놋다今君抱
何恨寂寞向時人이제그듸ᄂᆞᆫ므슴슬프믈아나寂寞히이젯사ᄅᆞ믈
向ᄒᆞᄂᆞ뇨老驥倦驤首蒼鷹愁易馴良驥ㅣ無伯樂之知故로
倦於擧首ᄒᆞ며蒼鷹이飢而附人故로愁於易馴ᄒᆞ니比鍩之無知音而困貧賤也ㅣ라
○늘근驥馬ㅣ머리드로ᄆᆞᆯ이처ᄒᆞ며프른매수이질드로ᄆᆞᆯ시름ᄒᆞ놋다高賢
世有識國合嬰飢貧노ᄑᆞᆫ어딘사ᄅᆞ미世예셔아디몯ᄒᆞ면진실로
주으리며가난호매버므로미마ᄌᆞ니다國步初返正乾坤尚風
塵謂代宗이復京師也ㅣ라○國步ㅣ처엄正호매도라오디乾坤애오히려風塵이

로다 悲歌鬢髮白遠赴湘吳春 슬피놀애블로매머리셰니湘吳ㅅ보ᄆᆡ머리가놋다 我戀岷下芋君思千里蓴 千里ᄂᆞᆫ吳人石塘湖名이라○나ᄂᆞᆫ岷山아랫토라ᄅᆞᆯᄉᆞ랑커놀그듸ᄂᆞᆫ千里湖앳蓴을ᄉᆞ랑ᄒᆞᄂᆞᆺ다 生離與死別自古鼻酸辛 자라셔여희욤파다못주거여희요매녜로브터고ᄒᆞᆯ식여ᄒᆞᄂᆞ니라

別董頲

窮冬急風水逆浪開帆難 窮盡ᄒᆞᆫ겨으레ᄇᆞᄅᆞᆷ맷므리새르니믌겨를거스려빗돗여러가미어렵도다 士子甘旨闕不知道里

寒甘旨는養親之物이라○士子ㅣ늘오맛난거시업슬서길희치위를아디몯ᄒᆞ놋다有求彼樂土南適小長安小長安은鄭州也ㅣ라○더즐거운샤ᄅᆞᆯ求ᄒᆞ야크로小長安애가嫡대列我升拜ᄒᆞ고覺君之

裘單나ᄅᆞᆯ여희오비타가ᄂᆞ니그ᄃᆡ의옷ᄀᆞ외ᄒᆞ오진ᄃᆞᆯ아노라素聞趙

公節兼盡賓主歡○趙公은必鄭州守也ㅣ라趙公이節介ㅣ賓主의歡樂을조쳐다ᄒᆞ오ᄆᆞᆯ일듣노라已結門閭望無令霜雪殘王孫

賈의母曰汝ㅣ朝出晚來則吾ㅣ倚門而望ᄒᆞ고暮出不還則吾ㅣ倚閭而望이러ᄒᆞ더○令董이離母而往鄭故로囑其早還也ㅣ라門閭에셔ᄇᆞ라오ᄆᆞᆯ미미잿ᄂᆞ니서리

와눈파로히여업ᄃᆞ록뻐디말라

老夫纜亦解脫粟朝未飡

老夫ᄂᆞᆫ甫ㅣ라○늘근노미빗주를쏘ᄀᆞ르노니것바ᄉᆞᆯ만ᄒᆞᆫ조토아ᄎᆞᆷ미머디몯ᄒᆞ얏노라

飄蕩甲兵際幾時懷抱寬

甲兵ㅅᄉᆞ이예飄蕩히ᄃᆞᆫ니노니어느저긔ᄆᆞᄋᆞ미훤ᄒᆞ려뇨

漢陽頗寧靜峴首試考盤

漢陽山峴首ᄂᆞᆫ適鄧經行之地故로甫ㅣ欲寄居而因及之ᄒᆞ니라考盤은成其盤桓也ㅣ라○漢陽은ᄌᆞ모便安ᄒᆞᆫ셔히니峴首에考盤ᄒᆞ믈맛보리라

當念著白帽採薇青雲端

甫ㅣ言我ㅣ著白帽ᄒᆞ야採薇峴山ᄒᆞ리니董은當念而來訪也ㅣ니라○흰곳갈스고青雲人그ᄃᆡ고사리키요ᄆᆞᆯ반ᄃᆞ기思念ᄒᆞ라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二